

수원, 사람과 더불어 숨을 쉬다

수원 정책성과 9선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원시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수원시 산하 출연연구기관입니다.



Contents

수원, 사람중심 인간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 06 기존 도시 패러다임의 한계
- 07 인간도시의 참뜻과 중점요소
- 07 수원시 정책에서 찾은 인간도시의 비전
- 08 인간도시를 위한 주요 정책 9선

인간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9대 정책

- 18 수원의 마을들,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 최석환
- 24 수원시민, 직접 안전을 중재하고 조정하다 | 김도영
- 30 수원시민, 직접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 김도영
- 36 수원시, 스타트업에 숨을 불어넣다 | 조용준
- 42 수원의 청소년과 어른들, 예산편성에 참여하다 | 황소하
- 48 수원, 인문도시로 거듭나다 | 최지연
- 54 어린이, 스스로 꿈꾸는 놀이터를 만들다 | 정수진
- 60 수원의 길들, 보행자 중심으로 거듭나다 | 김숙희
- 68 수원천이 다시 살아나다 | 강은하

진보적 인간도시의 의미와 구현 방법

| 조명래 단국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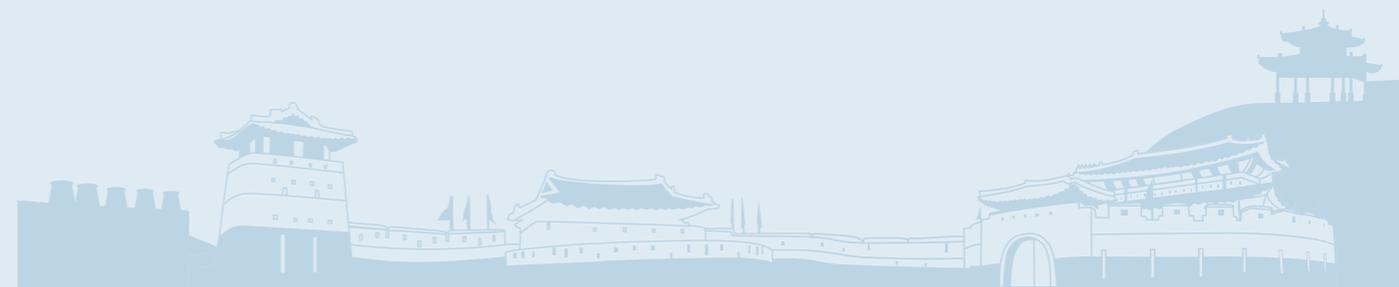
- 78 진보적 인간도시의 의미와 필요성
- 79 진보적 인간도시의 모델과 구성요소
- 81 진보적 인간도시 만들기의 경험
- 83 진보적 인간도시 만들기의 실천과제



수원, 사람중심 인간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재은

- 06 기존 도시 패러다임의 한계
- 07 인간도시의 참뜻과 중점 요소
- 07 수원시 정책에서 찾은 인간도시의 비전
- 08 인간도시를 위한 주요 정책 9선



수원, 사람중심 인간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재은

기존 도시 패러다임의 한계

한 사회의 가능성과 수월성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는 그 사회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지 일 것이다. 지난 20세기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환경파괴에 따른 지구 차원의 환경위기를 초래하면서 미래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에 경고가 주어진 게 사실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대부분의 나라와 지역에서 물질 성장을 위한 경제적 효율성이 여전히 우선시되고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사람은 소외되고 있다. 물질적인 삶이 풍요로워지고 도시가 마천루로 채워지는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졌어도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 도시는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며 만들어진 집약된 공간이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할수록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본에 포획되어 사람이 소외된다면 그 도시는 이미 유지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리라.

‘도시’는 ‘사람이 협동하며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과정에서도 물질 성장이 우선하며 사람이 소외되기 일쑤였다. ‘유엔 해비타트Ⅱ’에서는 주거권과 환경지속성을 존중하며 도시를 진정 인간에게 환원하고, 사람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결의했다. 개발주의를 우선해왔던 수원에서도 ‘인간도시(human city)’를 내걸고 도시행정이나 도시정책을 펼침에 있어 시민을 존중하는 쪽으로 전환해왔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화성을 안고 살아가는 수원의 역사성 과도 일맥상통한다.

‘애민사상’을 바탕으로 화성을 건설하며 백성 중심(民本)의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했던 정조의 정신을 존중해온 염태영 시장 또한 2010년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부터 인간도시를 기치로 본격적으로 사람이 반가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민선6기에도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내걸고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며 ‘인간도시’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인간도시의 참뜻과 중점 요소

인간도시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중심 도시를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규정만으로 인간도시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인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도시를 구성하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협동하며 사람중심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시정의 중심이 물질 성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우선하며 시민은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치의 성숙 과정을 통해 그 도시는 물질 성장 중심의 개발의제에서 자연스레 사람중심의 진보의제로 전환해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인문적·생태적 변영에 기반을 둔 유지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수원시 정책에서 찾은 인간도시의 비전

수원시는 일찍이 ‘시민참여’, ‘경제활력’, ‘도시재생’, ‘복지미래’의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사람과 도시, 도시와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더불어 시정을 운영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조성해왔다. 특히 2010년부터는 ‘시민참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록사관제’, ‘민원24 온라인서비스’, ‘e-시민정책자문단’ 등 14가지 참여형 제도와 시민우선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추진해왔다. 2013년에는 수원시정연구원을 설립하여 시민참여를 더욱 더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걸맞은 정책을 발굴하여 시정 운영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시민의 삶의 기반인 ‘경제활력’을 위해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맞춤형 기업유치’,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개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14가지 정책을 운영하고 지원해왔다.

수원시는 ‘시민참여’ 및 ‘경제활력’과 함께 환경과 공생하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제1회 세계생태교통페스티벌을 구도심에서 진행하며 생태교통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자전거 및 전기차 확산을 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수원 마을계획단’, ‘물탱크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또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시 환경 및 재생을 위해 물탱크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빗물향아리를 특허로 등록하여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시정운영을 꾀하면

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수원시는 또한 지속가능한 인간도시를 지향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미래'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수원 평생학습관',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수원아트피센터'를 마련하는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원시민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참여, 활력, 재생, 복지'라는 네 가지 요소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역동적으로 시행해왔다. 이러한 제도마련과 정책구현 속에서 수원시는 참다운 인간도시로서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더욱더 인간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매진하고 있다.

인간도시를 위한 주요 정책 9선

다음에 소개할 9가지 정책은 그 중에서도 인간도시의 비전을 구현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 받는 사업들이다. 이 책의 마지막에 기술되는 조명래 교수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마이클 더글라스 교수는 진보도시 모형을 논하면서 '포용성', '분배정의', '상열(相悅)',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축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가설에 대응하여 먼저 수원시가 역점을 둔 네 가지 주제를 되짚어보고, 이를 구현해온 정책 중에서 9가지 주요정책을 선정하고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인간도시 또는 진보도시의 이론적·실증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1. 포용성: 시민 주체화를 통한 도시 권리의 구현

인간도시의 첫 번째 축은 포용성(inclusiveness)이다. 포용성이란 말 그대로 시민들이 공공적 삶(public life)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며, 시정(市政)을 일방적으로 펼치지 않고, 시민을 포용하여 민-관이 더불어 협동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인간도시는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시민들을 포용하고, 시민들이 행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체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이 '도시권(right to city)'을 바탕으로 소외되어온 도시적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열린 관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요체이다.

수원시가 그동안 시행해온 정책들 중 '마을만들기(2013.05.)'와 '시민배심법정(2012.02.)', '좋은시정위원회(2010.04.)', '시민계획단(2012.02.)'과 같은 제도나 정책들은 특히 포용성에 기반을 둔 민-관 협동 거버넌스 체제구축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의 경우 수원시는 기존 도시 재개발 정책의 한계를 넘어 도시를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좀 더 총체적으로 인식하여, 주민 스스로 도시 정책에 참여하고, 자신이 원하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게 '마을만들기 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면 수원 곳곳의 마을들은 더 행복하고 정감 있는 마을로 거듭날 것이며, 이는 전국 자치운동 또는 도시재생의 선행적 모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민배심법정

수원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시책을 결정할 때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갈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고자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제도를 마련해왔다.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서 제반 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장(場)으로 앞으로 시민과 행정기관이 협의를 통해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의 시민참여모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시민계획단

'시민계획단'은 도시정책의 제반 사항에 대해 계획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도시정책을 추진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정도에 그쳤기에 아쉬움이 많았고,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민선5기에 도입된 도시정책 시민

계획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왔고, 앞으로도 집단지성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여 인간 도시를 구현해나가는 주요 기제가 될 것이다.

2. 분배정의 : 사회적 경제를 통한 분배정의의 구현

인간도시의 두 번째 축은 분배정의이다. 이것은 사람중심, 시민중심의 주체적 참여의 긍정적 결과들이 모두에게 공정히 돌아가는 사회경제화를 지향한다. 단지 어떤 말과 구호만으로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제시하기는 쉽다. 또한 포용성을 내세워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일도 쉽다. 하지만 그것들을 바탕으로 분배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경제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금세 드러나지 않기에 더 어려운 일이다.

수원시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여 수원형 창업시스템(2012.02.)과 주민참여 예산제(2010.12.)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기존의 성장논리에 매몰된 지배적인 정책적 결정 구조를 지양하고, 정책자원을 시장경쟁 논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공정하게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작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를 실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수원형 창업시스템

수원시는 창업에 의지가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창업 클러스터와 창의적인 창업환경, 그리고 창업지원 컨설팅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수원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예산제'는 기존의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양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참여적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동시에 수원시의 재정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정의와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이었고, 모범적 사례로 많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3. 상열 : 문화적 풍부화를 통한 시민 자율적 삶의 구현

인간도시의 세 번째 축인 상열(conviviality, 相悅)은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을 뜻하는 말로, 이는 곧 행복을 서로 나누며 즐거워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수원시는 인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세 번째로 이러한 상열에 주목하여 인문학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수원시가 지닌 현재적 가치뿐 아니라 과거의 전통적·역사적 유산들에 주목했으며, 수원시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율적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았다.

특히 '거리로 나간 인문학(2011.02.)'과 '꿈꾸는 놀이터(2015.02.)'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도시를 구현하고, 자칫 자율적 삶에서 으레 배제되기 쉬운 어린이에 주목한 정책으로 수원의 과거 뿐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거리로 나간 인문학

수원시는 거리로 나간 인문학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회복하여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더욱 성숙한 시민문화를 조성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 중심 인문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수원 권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수원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시대적 역할을 되새기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꿈꾸는 놀이터

수원시는 자율적인 삶을 누리는 데 있어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린이들에 주목했다. 수원시는 놀이터의 사용자인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오래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면서, 어린이들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놀이터를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함께 디자인한 놀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텅 빈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가 늘어나고 있다.

4. 지속가능성 : 생태순환의 복원을 통한 인간 = 자연 공생의 구현

수원시가 인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중점을 둔 마지막 축은 지속가능성이다. 한 사회가 아무리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하고, 배분정의를 실현하고, 모든 계층이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 자체가 생태적·

환경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면 그 도시는 인간도시로서도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사람중심의 시민자치 실현은 곧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전제되어야 유지 가능하다.

수원시는 무엇보다 인간도시의 구현에 있어서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과 제도를 조성해왔으며, '생태교통 수원 2013(2013.09.)'과 '수원천 살리기 시민운동(2012.02.)' 등 환경도시를 구현하려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성과는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수원시는 기존의 낙후되고 침체된 원도심을 재정비하고, 보행자중심, 사람중심의 환경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기후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왔다. '생태교통 2013'은 전 세계의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원이 추진하는 국제적 행사이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수원천 살리기 시민운동

'수원천 살리기 시민운동'은 수원시가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한 시정 위주의 하천복개계획을 철회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민-관 거버넌스 행정체계를 구축한 일련의 과정으로, 수원천을 복원한 수원시와 시민의 협동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어 21세기 전 지구적인 숙제이기도 한 생태정의를 선도적으로 구현해나가고 있다.

수원시의 과제와 나아갈 길

수원시는 이제까지 사람중심의 도시, 인간이 행복한 도시를 지향하며 많은 제도를 조성하고 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염태영 시장 취임 이후 인간도시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고, 인간도시로서 수원시의 비전을 재정립하면서 4가지 핵심 목표에 근거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앞에서 선정한 9가지 정책은 단순히 사람중심의 도시를 넘어선 '참다운 인간도시'로서 수원시를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다운 사람중심 인간도시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또한 앞으로도 구현해나갈 미래지향형이기도 하다. 인간도시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며 또한 우리 가족들의 것, 그리고 인간종을 비롯한 생태종과 자연 모두의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간도시 구현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계의 하나의 모범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내외적인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으며, 인간도시의 네 축을 바탕으로 더욱 사명감과 문제의식을 갖고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의 시민들은 집단지성으로서 결코 수원시의 정책형성 전반에 대해 방관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땀 흘려 지혜를 모아나가고 있다. 수원시가 점점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까닭은 이렇듯 시민들, 사람들 덕분이다.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더 행복한 수원시, 그 속에서의 자율적인 삶, 그렇다, 우리는 수원시를 만들어가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신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위해!

2010 - 2016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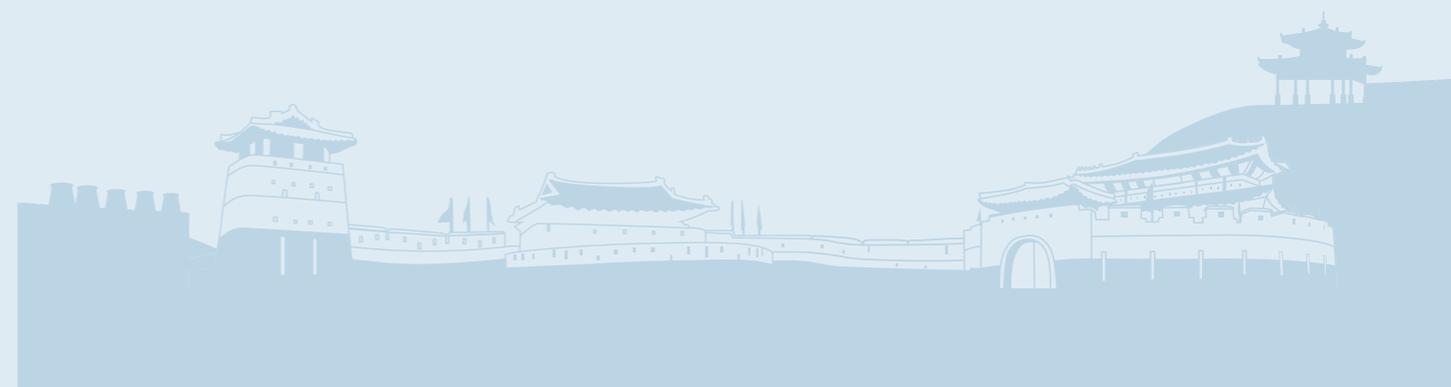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p>시민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사관제' 도입 좋은 시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24 온라인서비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 '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 구축 '자원봉사 스마트마일리지 시스템' 도입 운영 e-시민정책자문단 운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준광역시 조직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수원연고 KT위즈 프로야구단 유치 3급 직제 신설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부르크 국제자매도시 결연 수원시 인권센터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화성 방문의 해
 <p>경제활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주민참여 예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예산위원회' 구성 운영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특화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조성 운영 버스 내 개방형 WiFi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인재 인큐베이팅 사업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추진 사회적기업 세계로 페스티벌 추진 일자리창출 3단계 시스템 구축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 개소 사회적기업 창업프로젝트 경진대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형 생활임금제 도입 비정규직 10대정책 선포식 KT위즈 파크 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글로벌 명품시장 선정
 <p>도시재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교통수단 (노면전차) 도입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자동차보험 시범 추진 재개발·개건축 사업 출구전략 수립 카셰어링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운영 도시계획 청소년 계획단 운영 U-city 통합센터 건립 화장실 문화공원 개장 수원천 복원완료 3차원 공간정보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 마을계획단 운영 물탱크 재활용(빛물항아리 특허등록)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생태교통 수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p>복지미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개소 거리로 나간 인문학 수원평생학습관 개관 유사석유판매 신고포상금제 및 명예 감사원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Yes 생활민원처리반 가사 '홈서비스'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 할인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매입임대 주택 지원사업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 시행 자원봉사 마일리지카드 할인거리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통합정신건강센터 개소 여성문화공간 '휴'개원 수원아트피센터 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꾸는 놀이터 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개관 	





인간도시 구현을 위한 수원시 9대 정책

- 18 수원의 마을들,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 최석환
- 24 수원시민, 직접 안건을 중재하고 조정하다 | 김도영
- 30 수원시민, 직접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 김도영
- 36 수원시, 스타트업에 숨을 불어넣다 | 조용준
- 42 수원의 청소년과 어른들, 예산편성에 참여하다 | 황소하
- 48 수원, 인문도시로 거듭나다 | 최지연
- 54 어린이, 스스로 꿈꾸는 놀이터를 만들다 | 정수진
- 60 수원의 길들, 보행자 중심으로 거듭나다 | 김숙희
- 68 수원천이 다시 살아나다 | 강은하



01

수원의 마을들,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마을 만들기

최석환(csh@suwon.re.kr)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문화적 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국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발전 속도에 비하면 개인과 마을에 대한 인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그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위기의식 또한 생겨났다. 사람들은 지난 시대 모두가 함께 나누고 생활했던 마을 공동체를 그리워했고, 다시금 더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처음에는 시민사회의 주도로 이루어진 마을 만들기 운동은 이후 더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지만, 여러 지역적·정책적인 한계에 노출되면서 사실상 지속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 취임 이후 수원의 마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 도시정책에 참여하여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기존 도시 재개발 정책의 한계를 넘어 도시를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역사·예술 등 총체적 관점에서 인식하고,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 도시 정책에 참여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마을만들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마을들은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전국적인 자치운동이자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수원시는 이러한 물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흘러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절차와 내용

수원시는 염태영 시장이 취임한 이후 무엇보다 더 좋은 마을 만들기의 지속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2010년 제2부시장 직속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신설하고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 및 공포하였다. 또한 이듬해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르네상스 센터를 통해 다양한 공모사업 및 교육,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3년부터는 각 동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단을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을의 주민들도 수원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정책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모사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방면에 참여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수원시 내에 새로운 마을르네상스의 흐름을 일구어냈다.

년도별 추진내용

201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부시장 직속 마을만들기 추진단 신설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공포
2011.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
2011.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브랜드 '마을르네상스' 공모 선정
2011. 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르네상스 센터' 위탁 운영
2011.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사업 및 교육, 벤치마킹, 탐방, 홍보 등 역할 담당(마을르네상스 센터)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 마을계획단 추진(동별 마을계획 수립)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마을계획단 추진(동별 마을계획 수정 계획 및 실천 사업 추진)

추진체계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 마을르네상스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의 심의·자문은 물론 주민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 제안·연구 등의 지원
- 시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교수, 수원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총 28명)

마을만들기 추진단

- 수원시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운영
-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및 행정협의체 운영, 마을르네상스 홍보 등
- 추진단장 1명, 팀장 2명, 담당 공무원 4명 등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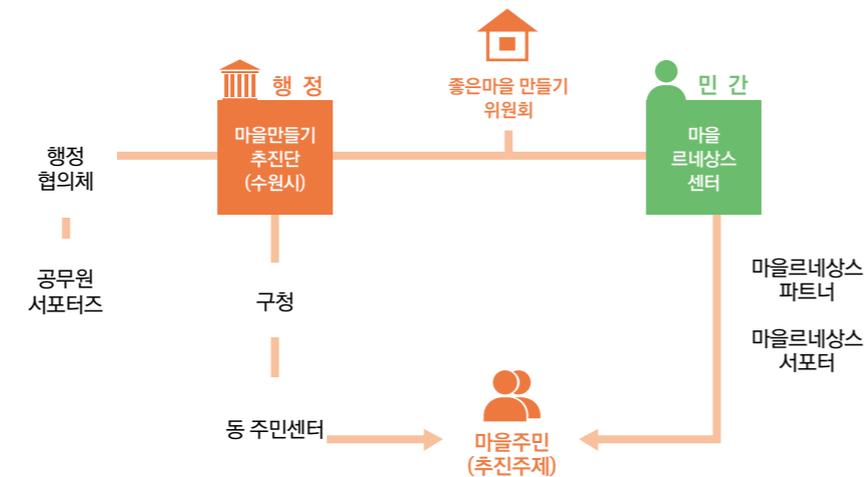
마을르네상스 센터

- 시민과 행정, 민간그룹과 함께 마을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 수행
- 주제별로 필요한 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통합적 지원활동 추진

민간 그룹

- 마을르네상스 파트너(단체, 기관, 청년벤처 등 그룹), 서포터(개인), 디자이너(전문가) 등

마을르네상스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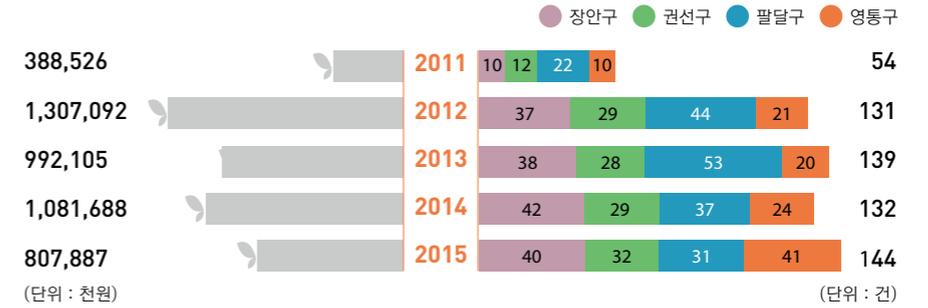


성과 및 결과사례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

-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약 5년 동안 주민이 주도하는 공모사업 약 600개 추진
- 공모사업 금액으로 약 46억 원 지원

공모사업 추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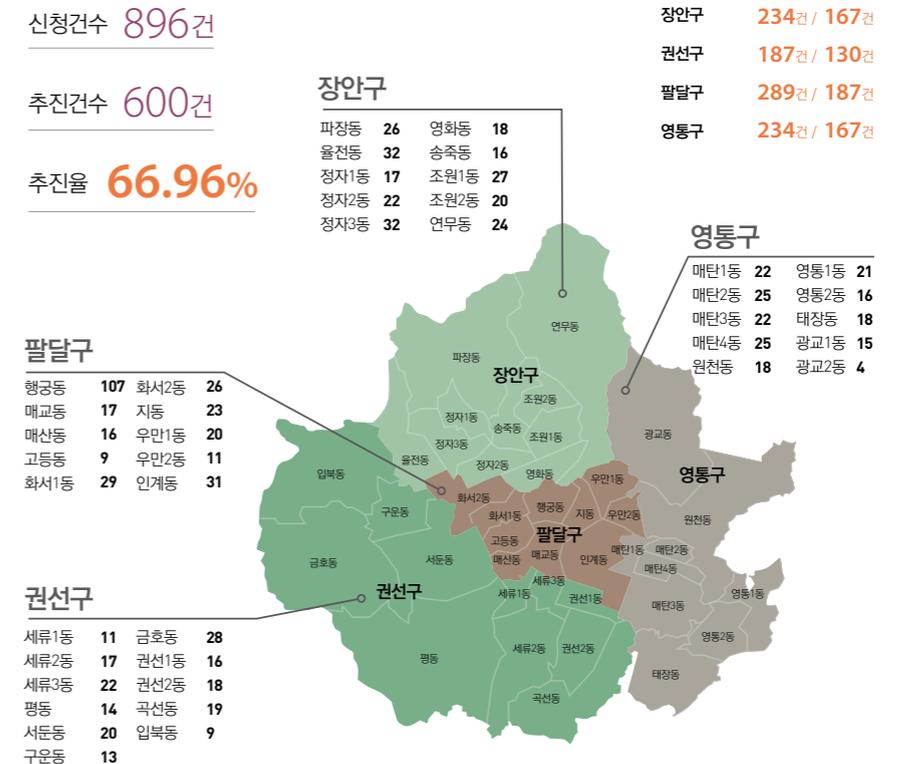


공모사업 동별 신청 / 추진 건수

신청건수 896건

추진건수 60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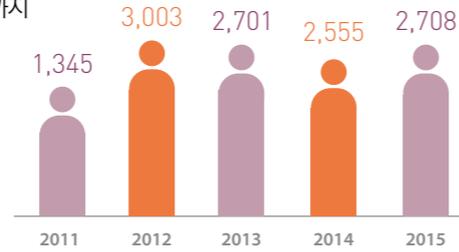
추진율 66.96%



공모사업 참여주민

- 2011년 1,345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5년 동안 12,312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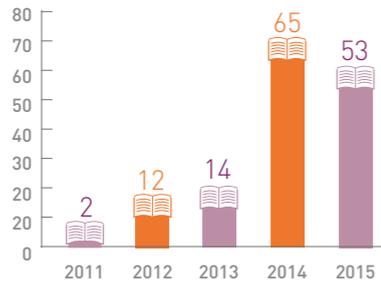
공모사업 추진주체 참여자
12,312명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 5년 동안 총 146회 교육 진행
- 교육에 참여한 주민 수는 3,224명에 이릅니다

교육 건수



교육 참여자



NEED

- 경제·문화적 발전에 따른 더 좋은 마을 만들기의 필요성 절감



PROBLEMS

- 기존 재개발 정책의 한계와 도시발전에 대한 제한적 관점
- 시민 스스로 도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족



선진사례 벤치마킹

- 국내 46곳, 국외 14곳 벤치마킹
- 국내 673명, 국외 100명 참여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국내 벤치마킹 건수	6	6	14	15	5	46
국내 벤치마킹 참여자 수	126	61	161	212	113	673
국외 벤치마킹 건수	3	3	3	2	3	14
국외 벤치마킹 참여자 수	4	15	18	21	42	100

수원시 탐방 기관

- 미시간주립대학교, 동경대 등 해외 주요 대학, 국내 공공기관 등 수원시 탐방
- 총 156건에 이르는 기관이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센터 방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탐방 건수	8	24	22	55	48	156
탐방 인원	70	301	165	1,323	1,050	2,909

관련 참고자료

- 김세용·최석환 외(2013),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정보지.
- 김도영·최석환(2014), 마을에서부터 도시까지 시민과 소통하다,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2016),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현황.

OVERCOME

- 총체적인 관점에서 마을만들기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
- 수원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마을만들기 문화 조성



RESULT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더 아름다운 마을 조성



02

수원시민,
직접 안건을 중재하고 조정하다

시민배심법정

김도영(suwon@suwon.re.kr)

국가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국민의 주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시정운영의 여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사법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한 사회가 더 굳건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 전반에 고루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법정에서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시민들의 사법참여 요구 또한 늘고 있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운영조례’에 따라 숙의적 시민참여 모델로 시민배심법정을 운영하여 시민참여적 의사결정문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밀접한 시정의 주요시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배심법정 사업을 시작하였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 등을 공개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 서로 공정하게 조율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하였다.

앞으로도 시민배심법정은 민-관 거버넌스 체제를 바탕으로 시정 현안 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문제까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場)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절차와 내용

2012년 11월 “115-4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취소 등”에 관한 안건으로 제1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 개정하였다.

처음에는 시민들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시 재개발사업을 깊이 파고들거나,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가늠하여 의견을 종합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안내하고, 직접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재확인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원하였고, 후속대책을 위한 다양한 자문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처음에는 제반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던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심의를 신청하고, 예비 배심원을 지원하는 인원도 급격히 늘었다. 덕분에 2013년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 마련” 건으로, 2015년에는 “신분당선(정자-광고) 역명 선정” 건으로 시민 배심법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시민배심법정은 시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안건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년도별 추진내용

2010. 11. 28	• 제1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안건: 115-4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취소 등) 개정
2013. 12. 27	• 제2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안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 마련) 개정
2015. 02. 07	• 제3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안건: 신분당선(정자-광고) 역명 선정) 개정

추진체계



심의신청

1. 해당 민원에 관련된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 연서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가 선임한 대리인
2. 해당 부서의 장



심의대상여부 결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 (7인 이내)



시민배심 법정 운영

예비배심원 선정(200명 이내)

- 공개모집 · 추천



사안별 시민배심원단 구성(10~20명 이내)

- 무작위 추첨

※ 필요시 전문가(30%)보완



판정관, 이해당사자, 시민배심원



평결결과 반영

성과 및 결과사례

제1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 **안건명**: “115-4 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취소 등”
- **결 과**: - 피신청인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본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본 사업의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도시재생개발사업 진행 동의여부를 조사할 것과 그 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고함
- 수원시는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를 재확인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야 함



제2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 **안건명** :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 방안마련”
- **결 과** : - 수원시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각 공동주택 단지들은 각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원시는 이런 주민조정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원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함



제3회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 **안건명** : “신분당선(정자-광고) 역명 선정”
- **결 과** : - 신분당선 광고동 지역 2개역(SB05, SB05-1) 중 광고역 명칭 사용지 선정과 관련하여 역명의 대표성 및 상징성 측면(광고신도시로서의 대표성 보다 신분당선의 종착지로서의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지역균형발전 측면(지역발전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요구 등을 고려하여 광고역명은 SB05-1이 사용하기로 함



관련 참고자료

- 법원행정처(2007),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법원행정처.
- 이동수(2006),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6(2) pp5-25.
-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 장영수(2002), 한국 헌법의 장래와 정당민주화의 의미, 한국공법학회 30(3) pp1-24.
- 시민배심법정 운영사진

NEED

-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배심제의 필요성



PROBLEMS

- 민주 사회에서 사법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제한적
- 시민의 사법참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부족



OVERCOME

-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에 따른 사법참여 지원
- 시민 주도적 의사결정을 통한 속의적 시민참여모델 구축 및 시행



RESULT

시민 스스로 사법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고 더 공정한 사회 구현



03

수원시민,
직접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김도영(suwon@suwon.re.kr)

기존 대한민국 도시계획의 수립과 진행은 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고, 도시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여부는 그 필요성을 모두가 인지하면서도 제도 및 사회적 인식의 한계로 도입이 어려웠다. 또한 이전에는 도시계획 과정에서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민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시민들의 참여수준은 단순히 설문조사나 공청회 정도로 국한되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정책 수립이 우선 순위가 되면서 시민참여는 더욱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수원시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여 시민이 도시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하는 '도시정책 시민 계획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활용되던 주민설명회,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직접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기위해서 수원시는 시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정책 추진을 사전에 제한하고, 시민들 스스로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기회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시민계획단이 도시계획 분야를 넘어 도시정책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집단지성으로서 도시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해주고 있다.

절차와 내용

2011년 시민계획단 구성방안을 처음 논의한 이래 2012년부터 수원시는 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민이 도시계획 초기단계에 직접 참여하면서 수원 시의 여러 정책들은 좀 더 활기를 띄었고, 2014년부터는 좀 더 직접적으로 '도시정책 시민 계획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으로 수원의 여러 안건을 논의하였다.

2014년 8월에는 수원역 롯데몰 개점 문제를 논의하면서 시민계획단을 개최하였다. 처음에는 이를 단순히 공청회 정도로만 인식하여 낮설어했던 시민들도 같은 해 10월, 수원컨벤션 센터 건립 문제를 논의하면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5년 10월에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재활방안과 노면전차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2016년 9월에는 민간참여 공원녹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면서 도시정책 시민 계획단은 집단지성으로서 민-관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구축 및 선도하고 있다.

년도별 추진내용

2010. 11. 11	• 시민계획단 구성방안 최초 논의
2012. 4 ~6	•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계획단 추진
2014. 7	•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으로 변경
2014. 8	• 도시정책 시민계획(개최) 개최(안건 : 수원역 롯데몰 개점 관련)
2014. 10	• 도시정책 시민계획단(2차) 개최(안건 : 수원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2015. 10	• 도시정책 시민계획단(3차) 개최(안건 :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및 재활방안과 노면전차 활성화 방안)
2016. 9	• 도시정책 시민계획단(4차) 개최예정(안건 : 민간참여 공원녹지 관련)

국내외로 확산된 수원시 시민계획단

- 4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수원시의 시민참여 도시계획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였으며, 2015년 까지 12곳의 도시에서 실제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
- 수원시는 자매도시인 모로코 페즈시가 개최(2014.6)한 자매도시 국제 포럼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으며 프랑스, 튀니지, 중국 등 18개 세계 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환경수도를 위한 수원시 거버넌스 정책'이라는 주제로 수원시의 시민계획단 정책 사례 발표
- 2014년 12월 12일에는 중국 베이징 사회혁신 국제행사 '베이징 스마트 도시 서밋(2014 DIY My Smart City Summit)'에 초청되어 시민계획단 등 참여형 도시정책 성공사례를 전파
- 또한 중남미 카리브해 경제위원회 주최 시민참여 포럼 발표(2014)에서 수원시의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수립에 대한 사례를 발표



시민들의 의견이 현실이 되다

- 2014년 롯데 몰 개점 관련 시민계획단에 참여한 시민들은 과선교 개통 이후에 롯데 몰을 개점 하되 주차 부제 운영, 주차요금 부여, 주차장 분산, 통과교통 분산 등 지속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음
- 실제로 롯데 몰 수원점은 당초 2014년 8월에 임시 개점할 예정이었으나 과선교가 개통된 이후인 11월 27일에 개점하였고, 주차 사전예약제와 주차요금제 등의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교통혼잡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 특히 시민과 행정기관 그리고 해당 업체가 협력하는 민관합동 교통대책 사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수원역 일원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주차 사전예약제와 주차요금체계를 완화
- 이 외에도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수원 도시철도 1호선(노면전차), 영흥 공원(민간참여 공원) 조성 등이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받아 계획을 진행 중

관련 참고자료

- 수원시(2015), 수원의 미래 시민에게 길을 묻다. 수원시 시민계획단 백서.
- 김도영(2015),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운영활성화 방안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김도영(2015), 속의적 시민참여형 의사결정을 위한 웹기반 지원시스템 개발. 수원시정연구원.
- 최석환·김도영(2015),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운영 및 사례 분석, 수원시.
- 이재준·김도영(2012),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논총 제51 권)

NEED

-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정책 참여 필요성



PROBLEMS

- 관 주도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진행 문화
- 시민참여를 마지막 단계의 의견청취 정도로만 인식



OVERCOME

-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 집단지성으로서 도시정책분야까지 주도하는 시민들



RESULT

시민이 직접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바라고 원하는 도시 구현



04

수원시, 스타트업에 숨을 불어넣다

수원형 창업시스템

조용준(naya@suwon.re.kr)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 역시 급감하고 있다. 청년들은 구직을 포기한 채 방황하고, 노인층은 재취업을 하지 못해 노후생활을 위협받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연령대에 해당되는 고용불안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선뜻 창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다져왔던 경제적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 이에 수원시는 창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진 이라면 누구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컨설팅을 통해 자신의 업(業)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원형 창업 시스템'을 구축 및 시행하고 있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기반 창업의 성공모델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구축된 창업 클러스터와 창의적인 창업환경, 그리고 창업지원 컨설팅 체계는 수원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창출된 일자리와 창업문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절차와 내용

수원시는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창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1년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설립, 예비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법적 지원과 인프라의 제공만으론 창업이 지닌 한계와 위험에서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에 수원시는 2012년 5월 24일,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교육 및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 '창조경제'의 흐름이 확산되면서 창업지원센터를 확장 건립하였다.

2016년 현재는 노년층을 위한 시니어창업보육센터를 특화하고, 창업교육원까지 부설기관으로 편입하면서 수원시 창업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 기업들을 멘토링하며 새로운 창업문화를 일구어가고 있다.

년도별 추진내용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령대(청년, 시니어 등)별, 분야별(농업, IT 등) 창업지원 체계 선정. •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시니어 특화 BI로 지정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센터 설립 등을 위한 준비작업 착수 • 3월 -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제정, 민간위탁 운영 기관 공고 및 선정(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5월 -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개소 • 11월 - 수원시 창업센터협의회 발족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시에서는 4월 창업지원센터를 확장 건립하도록 선정되었으며 6월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가 개소
2015~ 2016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 시니어창업보육센터가 특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SBIC자문 위원회 발족 • 2016 : 현재 수원시 창업지원센터로 시니어 창업보육센터를 포괄한 전체 창업 지원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교육원이 부설기관으로서 편입됨

추진체계

지원체계

- 창업교육원에서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준비 교육 시행 ▶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과 더불어 필요한 창업기반을 조성 ▶ 창업성장 지원센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업 육성 ▶ 수원 산업단지(광교테크노밸리)등 졸업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 지원

지원내용 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화자금지원, 교육 및 세미나, 시장성 지원, 기타지원 등

- 경영 및 기술지원: 기술지원 및 상담(기술경쟁력 및 역량증대), 정기적 사업진단(마케팅,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 사업화 자금지원: 마케팅(국내외 시장 개척 활성화, 판로개척), 비즈니스 시각화(제품 상용화, 기술개발 완성도 제고를 통한 빠른 시장진입), 지식재산권(특허 기술 등 인증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 및 세미나: 창업교육훈련(창업자 역량강화), 특강(성공한 CEO 초청특강)
- 시장성 분석: 맞춤형 시장분석(국내·외 시장동향 분석으로 급변하는 추세에 대응)
- 기타지원: 미니클러스터 운영(수원시 관내 기업 간 기술 및 기업협력모델 구축), B2C 구매 상담회 운영(마케팅 활성화 및 홍보영역 확대), 수원시창업센터협의회(수원시 관내 창업 센터 간 협력 강화), 협력기관 POOL(위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인프라 활용), 해외 진출 마케팅(예비창업자 및 사업자의 역량 강화), 기업홍보 및 동영상제작 (센터 입주 기업의 제품에 대한 전략적 홍보 및 기업마케팅 연계)

성과 및 결과사례

추진성과 각종 평가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일자리 창출의 메카도시로 자리매김

- 2011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선정(고용노동부)
- 2012년 지역일자리 공시제 대상 수상(고용노동부)
- 2013년 매니페스토 일자리 공약 분야 우수사례 선정
-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장려상 수상



대표 추진 사례 일자리 목표제시, 혁신적 청년사업가 양성, 사회적 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 우수 중소기업 유치,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일자리 목표제시: 1인 창조, 시니어 비즈 프라자 운영



- 전통시장 내 공간 116평 확보 하여 창업인프라 구축 지원(회원857명 참여)
- 교육(78회, 2,715명), 자문 상담(2,075건), 공동사무실제공(고정10, 자유17)
- 1인 창조기업(184명), 시니어(673명)이 124개 기업 창업
- 정책자금연계(12억)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일자리 창출 교육 진행



혁신적 청년사업가 양성: 소셜벤처 경진대회를 통한 청년 사회적 사업가 양성

- 혁신적인 아이템 및 사업모델 발굴 지원(2억 원)
- 멘토지정 운영 및 시청 해당부서와의 MOU체결로 인한 우선구매적극추진(5천만 원)



• **사회적 기업 육성: 골목길 사람냄새 나는 마을 기업 조성**

- 낙후된 골목길 문화소통 공간 조성으로 대통령상 수상(마을기업행궁숨씨)
- 오래된 구옥 전시 공간 조성, 들썩들썩 골목길 조성, 마을 벽화그림
- 동네 어르신이 판매하는 커피 한잔음악다방 운영(주민의 십시일반으로 빈 점포 임대)
- 할머니 손맛(된장, 간장, 고추장 기름제조 판매) 등 마을기업 6개 창업 121명 취업



• **문화콘텐츠사업추진: 전통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한 관광과 쇼핑이 연계된 팔달문 시장 조성
- 사업비 1,800백만 원(국비1,020, 도비234, 시비546백만 원)
- 유상박물관, 유상방송국, 왕의 길 등 18개 사업



• **우수중소기업 유치: 수원산업 3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 규모 795.397m², 사업비 4,521억 원
- 사업기간: 2010~2013.5
- 신성장 동력산업 우선유치(LED, 태양전지), 산업용지 96개 필지 분양완료
- 166개 업체(녹색기업16개), 종업원 2,160명
- 해외수출 확대지원(76회 1,191백만 원), 해외박람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지원



• **맞춤형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여성, 청년, 등)을 중심으로 한 로컬 네트워크 채용박람회 (3회, 채용 177명)
- 맞춤형 소규모 행사(매월15일, 매주 목요일)로 인한 취업활성화(39회, 채용214명)
- 일자리네트워크운영(19개 단체), 상담사 동행면접(237회, 채용183명)
- 맞춤형 장기프로그램(수원청년 뉴딜사업, 재취업지원 사업, 청년취업캠프) 운영

관련 참고자료

- 창조경제 종합 포털: www.creativekorea.or.kr
-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http://www.suwonbic.kr/html/index.php>
-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www.swse.or.kr/center/roll.html>
- 수원 iTV Blog: <http://blog.naver.com/suwonitv/100173282695>
- 김재형(2012), 청년창업지원시스템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참가자를 중심으로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2013), 201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집
- 신유섭(2013),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시니어 창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 김춘근(2015), 창업지원시스템과 창업가역량이 초기 기술창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 이성봉(2015), 한국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

NEED

-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



PROBLEMS

-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 및 법적 기반 부족
- 창업 이후 도약을 위한 컨설팅과 멘토링 시스템 부재



OVERCOME

- 누구든지 재취업 및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창업지원센터의 혁신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창업문화 선도



RESULT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구현



05

수원의 청소년과 어른들,
예산편성에 참여하다

주민참여 예산제

황소하(hsoha@suwon.re.kr)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형성·집행하고, 주민의 통제를 바탕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권위적인 지방자치 시스템 하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이 매우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주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점차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주민들의 의식이 제고되면서, 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작 주민들을 위해 쓰이는 예산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주민통제도 부족한 실정이다. 다행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원시 역시 2010년 엠태영 시장 취임 이후,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로컬거버넌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주민이 직접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 민주주의를 구현해나가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분배정의를 달성함으로써 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절차와 내용

수원시는 2009년 8월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례는 주민참여 기구의 설치 없이,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참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토대가 되지 못했다.

이에 수원시는 2010년 12월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의 전면개정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혁신적인 행보를 이어나갔고,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민관대표회의 신설, 심사회피제 도입, 위원회 지원확대 등이 추진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대학생 위원회를 시범운영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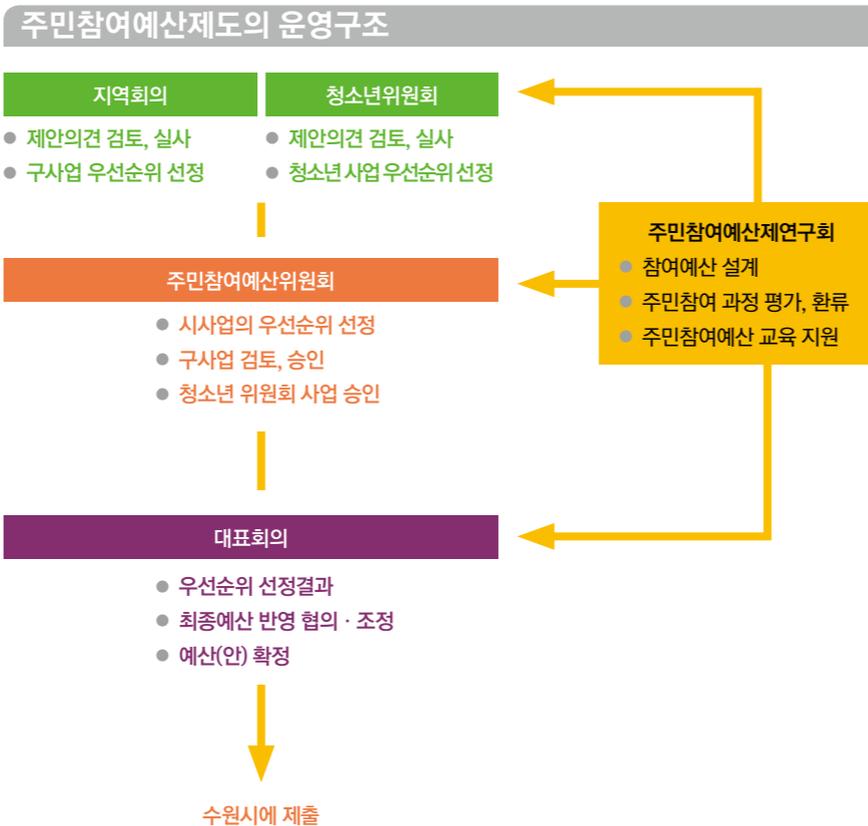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간 여러 차례의 제도개선과 시민사회·행정부문·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많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년도별 추진내용

1단계 조례제정 (2009. 8.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 8. 7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제정
2단계 조례전문개정 (2010. 12.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 12. 27 조례상에 주민참여예산 제도화 시행근거 마련 2011. 7. 19 민선 5기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본격출범
3단계 제2차 조례개정 (2012. 6.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최초 조례상 청소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민·관 대표회의 신설 : 주민 예산제안 최종 협의 조정

4단계 제3차 조례개정 (2013. 6.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회피제 도입 및 위원회 기능수행 행·재정 지원 규정 마련
5단계 제2기 위원회 출범 (2014.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학교 등 위원 역량강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 내실화 도모
6단계 제3기 위원회 출범 (2015. 1.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생위원회 시범운영 우선순위 사업 관리카드 작성 등 지역의견 청취 강화

추진체계



참여기구의 기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시 관련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사업 선정, 구 및 청소년 사업의 검토·승인 기능 등을 수행

- **지역회의** :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각 구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구 관련 제안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사업 선정 기능 등을 수행
- **청소년·대학생 위원회** :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우선순위사업 선정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 주민참여예산제도 설계, 운영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제시

운영절차

- 주민제안 수렴 ▶ 주민제안 사업의 위원회 심의·조정 ▶ 사업 우선순위 결정 ▶ 대표회의 협의 ▶ 예산편성에 최종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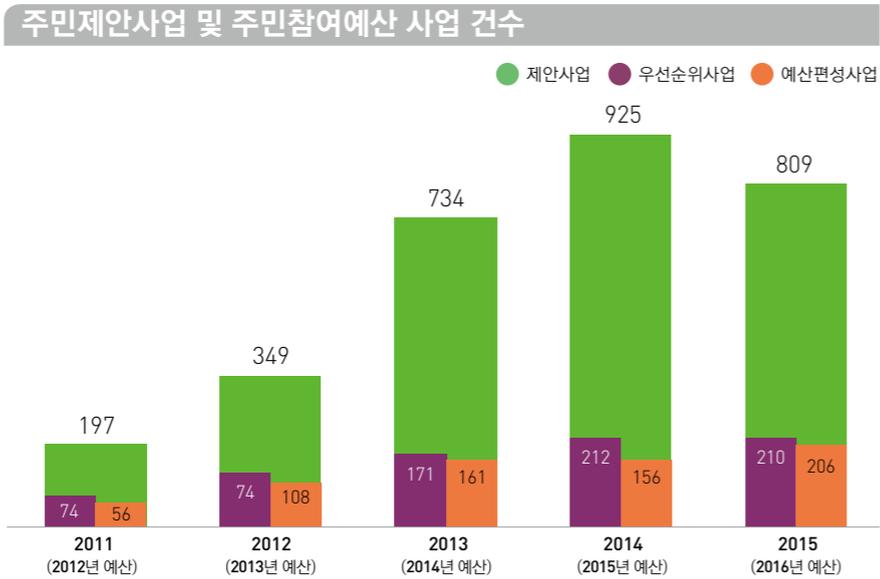
성과 및 결과사례

-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 캠페인 및 현장 홍보활동,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및 워크숍,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사업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예산참여를 이끌어냄
- 2011년에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 청소년이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2016년에는 대학생 위원회를 시범운영하여 청년정책 부문의 예산편성에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함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② 주민참여예산 합동 워크숍 ③ 수원시 청소년 위원회

-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우선순위사업 및 최종 예산편성 사업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냄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 사업, 구 사업 및 청소년 사업 전체에 제안된 사업은 연간 평균 약 603건으로, 첫 해인 2011년의 경우 197건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809건에 달함
 - 우선순위사업 역시 2011년도에 74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210건으로 크게 증가함
 - 최종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수는 시행 다음 해인 2012년에 108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총 206건이 예산에 반영됨



- 주민참여예산 반영액은 2011년 약 125억 원이었던 것이 2012년 크게 증가하여 약 280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는 감소추세를 나타내었으나, 2015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약 66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됨
 -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 부족 등으로 2013년도 이후 예산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위원회 및 행정부문의 노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다시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구분	예산 반영 (단위: 백만원)			
	총액	시 사업	구 사업	청소년 사업
2011 (2012년 예산)	12,460	10,072	2,387	-
2012 (2013년 예산)	27,978	22,282	4,186	1,509
2013 (2014년 예산)	11,514	6,570	4,122	822
2014 (2015년 예산)	5,118	1,516	3,313	289
2015 (2016년 예산)	6,609	2,446	3,759	404

- 수원시는 특정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관리, 환경, 도로, 교육·문화, 복지부문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주민 필요사업을 주민의 직접참여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적극 발굴,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음



06

수원, 인문도시로 거듭나다

거리로 나간 인문학

최지연(choi.jiyoun@suwon.re.kr)

21세기 들어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우선시되면서 비인간적인 사회 문제가 늘고 있다. 물질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했으며 한 발 더 나아가 각 지역의 환경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 문제의식은 자연스레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인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수원시는 모든 시민들이 참다운 인문정신을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수원시는 일찍이 조선의 인문학적 르네상스 시대를 연 제 22대 왕, 정조가 조성한 계획도시였다. 수원화성은 '인인화락(人人和樂) 호호부실(戶戶富實)'이란 정조의 개혁과 효, 애민사상을 담은 인문정신을 실증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수원시는 다시금 이러한 수원의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가치에 주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0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시대를 넘어선 인문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시대적인 요구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선적으로는 내적 변화와 참다운 삶을 지향하는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이 삶의 가치를 회복하여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궁극적으로는 더욱 성숙한 시민문화를 조성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수원시는 인문학을 통해 수원 권 역사·문화적 가치를 발굴하여 수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공동체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회복하여 21세기 차별화된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절차와 내용

2010년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수원시는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시정 비전을 내세우며 21세기형 인본주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이듬해 바로 수원 인문학중심도시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수원시는 2012년~2014년, '인문학 중심도시'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시인문학 콘텐츠 개발부터 지원시스템 구축까지 5개 분야 15개 부문에서 68개 사업을 시행하였다.

전국 최초로 인문학팀을 꾸렸기에 생소함에서 비롯된 행정적 어려움도 있었고, 시민들 또한 환영의 목소리가 컸던 만큼 기대와 요구가 많았기에 인문학 업무추진이 쉽지않은 않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3년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였고, 인문학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차례로 구성하였다. 마침내 2014년부터는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문도시 수원'이라는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여 2015년~2018년까지 2차 계획으로 7개 분야 21개 부서에서 57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년도별 추진내용

2011. 2	● 수원인문학중심도시 TF팀 구성
2011. 4	● 인문학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수립: 5개 분야 8개 부서 29개 사업
2011. 12	● 인문학중심도시 수원만들기 종합계획연구(2012~14년 5개 분야 15개 부문 68개 사업)
2013. 2	● 전국 최초로 인문학팀 신설: 인문학 업무추진 전담
2013. 7	● 인문학중심도시 조성 조례 제정: 인문학중심도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법적 기반 마련
2013. 10	● 인문학 실무위원회 구성: 인문학 추진사업 소관부서 실무자(팀장급 이상) ● 인문학 자문위원회 구성: 분야별 전문가(인문, 건축, 의료, 조경 등) 13명
2014. 10	● 인문학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수립: 2015~18년 2차 계획 7개 분야 21개 부서 57개 사업
2016. 2	● 인문학 자문위원회 2기 구성
2016. 6	● 수원 인문도시대축제 기본계획 수립: 기존 인문관련 축제 통합.
2016. 7	● 수원 인문기행특구 계획(안) 수립

구분	추진년도	정책목표	추진분야	비고
1차	2011~2014	인문학 기반 조성	5대 분야	
2차	2015~2018	인문사업의 대중화	7대 분야	

추진체계



수원인문학중심도시 TF팀 구성

팀장 : 수원박물관장 / 팀원 : 관련부서 팀장



인문학팀 운영

인문학 사업 관련 부서 총괄, 자문위원회 운영



연관 부서

공보관,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 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 문화교육국(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도시정책실(토지정보과), 마을만들기추진단,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공원녹지사업소(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수원문화원, 수원문화재단,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립미술관, 장안구민회관

성과 및 결과사례

인문도시 기반조성

-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2011년 5개분야 29개사업 ⇒ 2014년 5개분야 50개사업)
-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2015년 7개분야 57개사업)
- 평생학습관 설립(2011), 수원문화재단 설립(2012)

인문적 도시 행정 구현

- 인문도시 지역특구 지정추진
- 사람중심 인문적 도시정책 확산(2015 인간도시 토론회 개최)
-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유치(2016)

수원의 정체성 정립

- 수원학 강의 개설 운영 협약 체결 : 6개 대학
(경기대, 경희대, 아주대, 한신대, 협성대, 성균관대)
- 시민인문강좌 MOU체결 : 수원시, 경기대
(13개 분야, 113강의, 참여 9,496명)

인문자원의 발굴 활용

- 나혜석학회 학술대회 개최 : 7회
- 수원시민 인문대학 운영 : 702회, 14,871명

맞춤형 인문학의 활성화

- 찾아가는 평생학습 인문맞춤강좌 : 71개 모임, 1,094명
-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운영 : 120회, 46,550명

책 읽는 도시 수원 만들기

-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도서관 확충 : 20개소
(운영중-16개소, 2016년-1개소, 2017년까지-3개소)
- 북카페 설치 : 27개부서, 30개소(평균이용 실적 : 1일 / 1,680명)

함께 만들고 향유하는 인문도시 조성

- 공방거리 조성 : 62개소
- 버스정류장 인문학글판 : 6회, 477개소
- 아름다운 행궁길 갤러리 운영 : 164회
- 수원희망글판 : 14회, 5개소



시민참여현황

구분	계	강좌	전시	축제	공연	체험	비고
계	15,087/ 1,346,229	11,437/ 297,519	161/ 663,541	12/ 128,200	73/ 24,210	3,404/ 232,759	
2011	1,379/ 308,637	831/ 23,694	24/ 219,063	6/ 34,200	18/ 6,320	500/ 25,360	
2012	1,863/ 263,632	1,281/ 38,856	33/ 148,321	2/ 34,000	15/ 8,330	532/ 34,125	
2013	3,545/ 396,404	2,217/ 70,980	33/ 175,323	2/ 35,000	18/ 2,268	1,275/ 112,833	※체험 생태교통축제 100,000명
2014	8,300/ 377,556	7,108/ 163,989	71/ 120,834	2/ 25,000	22/ 7,292	1,097/ 60,441	
2015	14,225/ 934,219	13,483/ 290,819	126/ 134,817	7/ 342,981	245/ 145,037	364/ 20,565	※축제 수원화성문화제 311,329명

관련 참고자료

- 수원시(2011)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 수원시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2011)
- 인문학 중심도시 수원만들기 마스터플랜 연구
- 수원시(2013). 인문학 중심도시 수원 추진성과
- 수원시(2014). 수원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
- 수원시(2014). 인문학 중심도시 4년의 성과 인문학으로 삶의 가치를 찾다
- 수원시(2016). 2015 인문도시 조성사업 추진성과

NEED

- 인간 본연의 가치 회복을 위한 인문 도시 조성의 필요성 부각



PROBLEMS

- 전국 최초 인문학팀 구성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과 관련법 부재
- 시민 중심의 인문도시 구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 부재



OVERCOME

-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법적 기반 마련
- '시민이 행복한 인문도시 수원'이라는 비전 정립 및 추진



RESULT

참다운 인문정신이 깃든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 구현



07

어린이, 스스로 꿈꾸는
놀이터를 만들다

꿈꾸는 놀이터

정수진(sjchung@suwon.re.kr)

한 사회의 가능성과 우수성을 가능하는 척도 중 하나는 바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 구성원이며 자신의 삶을 즐기고 만끽할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은 기성세대와 사회 전체의 의무이다.

하지만 오늘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기존의 놀이터 또한 일정한 법규에 따라 어른들이 만들었기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수원시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여 어린이들 스스로 꿈꾸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놀이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꿈꾸는 놀이터'를 수원시 민선6기 약속사업으로 내세우고 전면적으로 추진하였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우선적으로 놀이터의 사용자인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오래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면서, 어린이들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놀이터를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상상력과 감수성을 발달시키고, 창의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도 한층 더 견고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시내 곳곳에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사회, 모든 시민들이 꿈꾸는 모습일 것이다.

절차와 내용

2015년 '꿈꾸는 놀이터'가 민선6기 약속사업으로 정해진 즉시, 수원시정연구원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공6호 어린이공원'을 꿈꾸는 놀이터 1호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지역 놀이터의 한계를 찾고, 그것들을 재구성하게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에 수원시는 먼저 어린이들의 생각을 도출해내고 경청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어린이 집과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인터뷰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참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 교사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문제를 찾고 생각하게 하였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꿈꾸는 놀이터의 모형을 만들고 소개하도록 이끌었다. 설계와 시공이 나뉘어 발주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주체들과 더욱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2015년 '어공6호 어린이공원'과 '산남어린이공원', 그리고 '송죽 어린이공원'이 꿈꾸는 놀이터로 거듭났고, 2016년에는 '서낭재 어린이공원', '숙지공원 숲 속 놀이터'외 1개소가 꿈꾸는 놀이터로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어린이 참여 디자인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함께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년도별 추진내용

2015.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선6기 약속 사업 꿈꾸는 놀이터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수원시정연구원 협력체계 구축 꿈꾸는 놀이터 1호 대상지 선정 - 어공6호 어린이공원 어린이참여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2015. 3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참여 디자인 프로그램 진행(선일초등학교 27명)
2015.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인터뷰
201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참여 디자인 프로그램 평가 및 자문 꿈꾸는 놀이터 어공6호 조성계획 수립
201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꾸는 놀이터 어공6호 계획안 및 설계안 작성
2015. 8. ~ 201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공6호 어린이공원 조성 행정절차
201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꾸는 놀이터 어공6호 공사추진
2016.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꾸는 놀이터 어공6호 준공
2016.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꾸는 놀이터 어공6호 개장식(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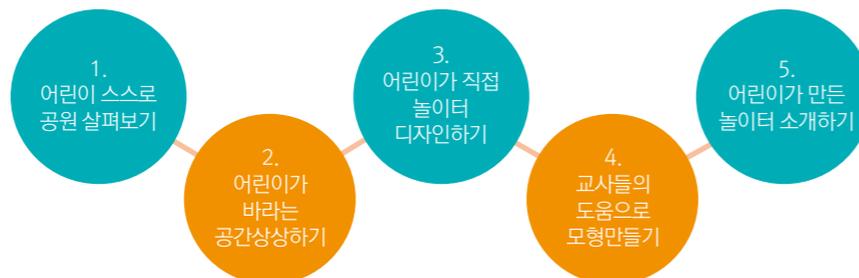
추진체계

대상지 선정 : 꿈꾸는 놀이터 대상지 선정 기준

 1	 2	 3
미집행 어린이공원 혹은 시설이 노후한 곳	주변 커뮤니티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곳	주변 학교의 협조가 가능한 곳

어린이 참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추진하는 각 단계에서 수업을 총괄하는 진행교사와 모둠별 담당교사, 보조교사로 구분하여 역할을 담당하고, 수업 전·후 집중검토회의(FGI)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디자인센터의 협업체계

- 꿈꾸는 놀이터는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의 틀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바라는 상상력과 감수성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인 테마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수원시정연구원이 협력하였다.

성과 및 결과사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 수상

- 어린이들이 직접 자신의 마음에 드는 놀이시설물을 구상하고 만들어 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디자인 과정으로 지역의 놀이공간 개선사업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디자인의 사례로 대상 없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제1호 꿈꾸는 놀이터, 어공6호 어린이 공원이 버블놀이터로 변신

-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수원시 꿈꾸는 놀이터 '버블파크구 어공6호 어린이공원'이 탄생했다. 2015년 선일초등학교 어린이 27명, 주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함께 디자인한 버블파크는 모험놀이, 언덕 놀이, 창의놀이, 그물놀이, 회전놀이, 모래놀이 등이 구성되어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어린이들이 직접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 필요한 시설과 환경을 제안 할 수 있는 참여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주변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는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디자인하는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버블파크의 개장을 알리는 개장식을 진행했다.



어린이 참여 디자인의 새로운 방법론 제시

- 어린이 참여 디자인의 방법론으로는 설문조사, 인터뷰 등 소극적인 참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꿈꾸는 놀이터의 경우 디자인 교육이라는 매우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디자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디자인 교육

-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은 비교당하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시기이고, 리더십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꿈꾸는 놀이터에 참여한 아이들은 직접 놀이터의 문제를 발견하고 디자인을 통해 이를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을 배운다. 또한 결과물을 완성도 있게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이는 아이들의 자존감 회복과 리더십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디자인 과정은 창의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나의 생각을 말로만 표현하던 아이들이 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모형으로 표현해 가면서 아이들은 완성과 성공의 경험을 하게 된다.

관련 참고자료

- 어공6호 어린이공원(버블 놀이터) 준공사진



- 어공6호 어린이공원(버블 놀이터) 설계과정



어린이들이 원하는 조합놀이대가 없는 새로운 놀이터

01 언덕모험놀이	어린이들은 단순한 조합 놀이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언덕을 오르내리면서 연속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였다.
02 그물놀이	공중 그물, 네트, 줄놀이 등 바닥에서 떨어져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고 놀거나 매달려 놀고 싶어 하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03 회전놀이	속도감을 느낄수 있는 회전놀이활동을 제안한 어린이들도 많았다. 회전 의자는 동글게 다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였다.
04 놀이벽 창의놀이	어린이들은 시설물 뿐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안하였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벽 혹은 놀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05 그네 징검다리	어린이들은 그네와 철봉, 징검다리 등 기존의 놀이 시설 또한 필요하다 생각하였다. 어린이집 친구들은 유아부터 고학년까지 연령별로 탈수 있는 높이가 다른 그네를 제안 하기도 하였다.
06 광장휴식공간	한참 주목받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은 자신의 장기를 뽐낼 무대를 제안하였다. 3모듬 어린이들은 놀이터를 소개하면서 그 무대에서 할 비트박스 공연을 보여주었다.

NEED

-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다양한 놀이욕구를 충족하는 놀이터의 필요성 제시



PROBLEMS

- 어른의 관점에서 만든 낙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산재
- 어린이 스스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 부재



OVERCOME

-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협업 지원
-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 준공 및 개장



RESULT

어린이가 더 행복한 사회 구현



08

수원의 길들,
보행자 중심으로 거듭나다

생태교통 수원(2013)

김숙희(sukheek@suwon.re.kr)

한국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차량을 중시 여길수록 인간은 교통수단에 밀려 길에서 소외되었고, 무분별하게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지구의 환경은 점점 더 위협을 받게 되었다. 막연하게 자동차가 없는 도로를 상상하기는 어려웠고, 사람들은 이렇다 할 해결책 없이 그저 각종 교통사고와 매연의 발생을 걱정하기에 급급했다.

수원시는 이러한 시점에 무엇보다 사람중심, 보행자중심의 도시환경을 지향하면서 교통의 편의는 기본이요, 사회적 포용성에 중점을 두었고, 궁극적으로는 생태 친화적인 교통수단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사회적 결속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생태교통 2013'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낙후되고 침체된 원도심을 재정비하고, 보행중심, 사람중심의 환경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바탕으로 진정한 녹색도시를 구현해가면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생태교통 2013'은 전 세계의 환경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원이 추진하는 국제적 행사로, 수원시가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진정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혁신적인 도시임을 국내외에 알려 생태도시로서 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절차와 내용

수원시는 2011년 생태교통 페스티벌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이듬해 수원 행궁동을 생태교통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수원의 생태환경과 교통의 편의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주민의식과 가구통행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였다.

수원 시민들도 처음에는 '생태교통'이라는 주제를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인식했지만, 2013년부터는 직접 시민들의 입장에서 수원의 환경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주민추진단을 출범 시키고, 생태교통 문화해설사를 육성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시민중심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덕분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마침내 2013년 9월에 이를 기반으로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생태교통을 위한 3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모델을 연구하여 2014년 1월에는 구체적인 성과 및 방향을 제시하고 백서를 통해 보급할 수 있었다.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여전히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년도별 추진내용

2011. 10	● 생태교통 페스티벌 시범도시 선정
2012. 4	● 생태교통 시범지역 선정(수원 행궁동)
2012. 5 ~ 11	● 주민의식 및 가구통행실태 분석을 위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및 분석
2013. 1 ~ 3	● 주민추진단 출범, 집행위원회 위촉,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등
2013. 4 ~ 6	● 조직위원회 출범, 홍보대사 위촉, 생태교통 문화해설사 육성, 자원봉사자 모집, 예비행사 추진 등
2013. 7 ~ 8	● 기반시설 조성, 이동수단 보급 ●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추진
2013. 9	 <p>차 없는 마을(신풍, 장안동)</p>
201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교통 300인 원탁토론회 개최   <p>300인 원탁 토론(2013. 11)</p>
2013. 10 ~ 12	●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2014. 1	● 생태교통 2013에 대한 백서작성 및 보급

추진체계

주요사업 추진내용

정조로 통제

- 9월 1일부터 8일까지 신풍, 장안동 동쪽을 남북으로 지나는 4차로 도로인 정조로 통제하고, 버스, 영업용차량 등에 한하여 통행을 허가하였고, 일반 개인 차량에 대해서는 전면통제
- 양복 4차로 중 사업지 측 2개 차로를 보행자에게 개방하여 생태교통 수단체험, 자유로운 보행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



정조로 통제

주민생활편의 지원

- 사업지역 1:1 방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및 대책방안 마련
- 자동차 없는 일상생활을 위한 생태교통 이동수단 보급
- **임시 주차장 지원** : 사업지역 인근 5개 주차장 마련 및 셔틀버스 운행
- 생태교통 축제쿠폰 운영 지역상권 활성화
- **이동 경찰서 운영 안전대책 수립** : 세그웨이 등 활용 누비기식 순찰활동 실시
- 지역주민을 위한 장기 지속형 문화사업 행궁동 문화슈퍼 운영



자전거 순찰

사전 및 개·폐막 행사

- **사전행사** : D-365, 화서문로 거리축제, 카프리데이(Car Free Day), 8·15자동차로부터 독립만세 등
- **개·폐막 행사**
- **부서연계 주요행사** : 수원화성문화제, 환경영화제, 자원순환축제,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등 13개부서 연계 행사 추진

전시 및 체험

- **생태교통 전시관** : 이동수단 35종 전시(국내 30종, 해외 5종)
- **실물모형 노면전차 전시(5모듈)**
- **기후에너지 홍보·교육·체험관** : 그린타임머신(홍보관), 그린랜드(학습관), 그린놀이터(놀이관)
- **이색수단 체험장** : 이색이동수단 53종 171대 운영(국내 37종 93대/해외 16종 78대)



이색자전거 전시 및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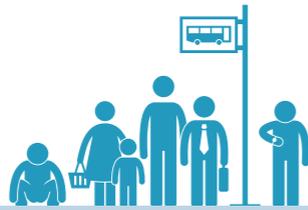
주요 추진체계



- '생태교통 수원2013' 조직위원회 : 2013. 4월 발족 최고 의사결정 기구 조직
- 주민추진단 : 행궁동 주민으로 구성된 자발적 주민 추진체로서 11개 분과로 구성,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운영, 행사 기획등 주민 참여 및 홍보주도
- 수원시 생태교통추진단 : 수원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 전담부서
- 생태교통 사무국 : 수원사무국 및 ICLEI 본 사무국
- 시민 자원봉사단
 - 일반 자원봉사자 41단체 1,446명, 언어통역 425명, 모범운전자회 3,648명, 마을해설사 41명등 5,936명 자원봉사자 참여
- 서포터즈 : 행정서포터즈(수원시 소속 6~7급 공무원으로 구성), 시민서포터즈(수원시민, 학생이 주축 시민홍보단 역할), e-서포터즈(일반시민, 주부,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생태교통 전담 홍보단으로 공식SNS를 통해 5,140건 온라인 홍보)

NEED

- 기후변화 및 교통문제에 대응하여 사람중심 환경도시의 필요성 절감



PROBLEMS

-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파괴와 낙후된 원도심 문제
- 교통체계에서 소외된 보행자와 노약자들을 위한 정책 부재



OVERCOME

- 생태도시로서 원도심을 재정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사람중심, 보행자중심의 환경수도로서 선도적 모델 제시



RESULT

시민들이 길에서 더 행복한 세계적인 생태교통도시 구현



성과 및 결과사례

- 도시교통의 새로운 미래상 정립이라는 선도적 주제와 체계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100만명의 관람객 확보 및 생태교통 이용문화 확산
- 낙후되고 침체된 원도심 도시 재생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확보
- 국내·외 권위 있는 "상" 수상 및 지자체 우수사례로 평가
- 주민(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성공적 사업 개최
 - 자동차 이동을 99%의 높은 참여율, 지역주민 기획과 운영의 주체로 발전
-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준비로 방문객 만족도 증대
- 민·관 거버넌스 정책을 새롭게 정립
 - '민'과 '관'의 협력적 역할을 통한 주민참여 및 성공적 사업 수행
- 시민의식 변화를 통한 생태교통 전환의 토대 마련
- 생태교통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향상(보행환경, 대기환경, 대기환경 만족도 향상 등)

관련 참고자료

- 김숙희 외 1인,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지역의 마을 환경 만족도 분석" 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제11권 제4호, 2014년 8월
- 김숙희 외 1인, "생태교통 수원 2013-교통변화 분석", 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제11권 제1호, 2014년 4월
- 수원시(2014), "즐거운 도시산책 생태교통 수원 2013", 발표자료
- 수원시정연구원(2014), 김숙희 외 4인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 수원발전연구원(2012), 김숙희 외 4인,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인식 및 가구 통행실태 조사 연구"
- 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 정우현 외6인, "생태교통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09

수원천이
다시 살아나다

수원천 살리기 시민운동

강은하(ehkang09@suwon.re.kr)

수원천은 조선의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조할 때 물길이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화홍문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유서 깊은 하천으로, 수원천 물은 20세기 초반까지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 주변의 제조업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하천이 오염되기 시작했고, 더불어 수원천 인근의 전통시장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택지개발이 늘면서 오염이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초 수원시는 하천복개를 통해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하천 주변 상가들의 경기활성화를 모색했고, 이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수원천의 자연문화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정책목표

수원시는 본래 전면적인 하천복개계획을 세워 더욱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교통 및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방적인 복개 계획은 외려 수원천을 시민들로부터 격리시키고 환경문제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민·관 거버넌스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수원천을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고자 했다.

절차와 내용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원시민들은 수원천 복개에 따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시민운동을 일으켰다.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고, 약 6개월에 걸쳐 수원천 복개 반대운동을 전개한 결과 수원시는 수원천 복개 철회를 결정하였다.

이후 수원시는 시민들과 '수원천 옛 모습 찾기'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였고, 수원천 상류 1.2km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였다. 그러나 복개구간이 남아있는 이상 이는 반쪽짜리 성공으로 평가될 뿐이었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수원천의 완전한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복개구간 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침내 수원천은 온전히 사람중심, 자연중심의 전통적·생태적 하천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돌아온 수원천은 궁극적으로 수원시를 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 더 행복하고 화목한 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① 화홍문과 방화수류정의 옛모습(출처: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수원시, 2000)
② 화홍문아래 개울(수원천)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 (1962) (출처: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수원시, 2000)

추진절차

수원천 복개에 맞선 복개중지 시민운동 전개

- 도심하천의 복원과 문화재 보전에 대한 주장 제기로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발족, 수원천 복개반대운동이 일어남
- 약 6개월에 걸친 반대운동 결과 수원시에서 수원천 복개 철회를 발표함

수원천 옛모습찾기 사업 추진

- 하천 복개사업 중지 후 수원천 상류 1.2 km 구간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함
- 그러나 복개구간 존치로 반쪽짜리 성공으로 평가됨

복개구간 복원사업 추진

- 수원천의 완전한 자연성 회복, 도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복원계획 수립 및 완성
 - 복원사업기간: 2007-2011
 - 내용: 길이 780m(매교~지동교), 폭 30m 구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 사업비: 67,620백만원 (국비 18,000, 도비 6,000, 시비 43,620백만원)

년도별 추진내용

1991 ~ 1994	● 수원천 일부구간(매교~지동교) 복개
1955. 12	● 수원천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 결성
1996. 1	●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시민서명운동 실시
1996. 2	● 문화재관리국에 화성 남문 복개공사 중지 및 원형 복원촉구 요청 청원서 제출
	● 수원지역 시민단체 대표 40명 수원시장 항의방문 및 복개반대 의견 전달
	● 수원천되살리기 시민토론회 개최
1996. 2	●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수원성곽 보호 위해 복개공사 중지 통고문 받음
	● 복구 촉구 시민대회 개최
1996. 3	● 복구 촉구 시민대회 개최
1996. 5	● 수원시 임시 회의에서 복개공사 철회 전격 발표
1995 ~ 1998	● 수원천내 일부 구간 자연형하천 조성 1단계 사업 (2.3km)
1999 ~ 2001	● 수원천내 일부 구간 자연형하천 조성 2단계 사업 (3.5km)
2006	● 수원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7	●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공청회 개최
2007 ~ 2012	● 수원천 복개구간에 대한 복원 및 전구간 자연형하천 조성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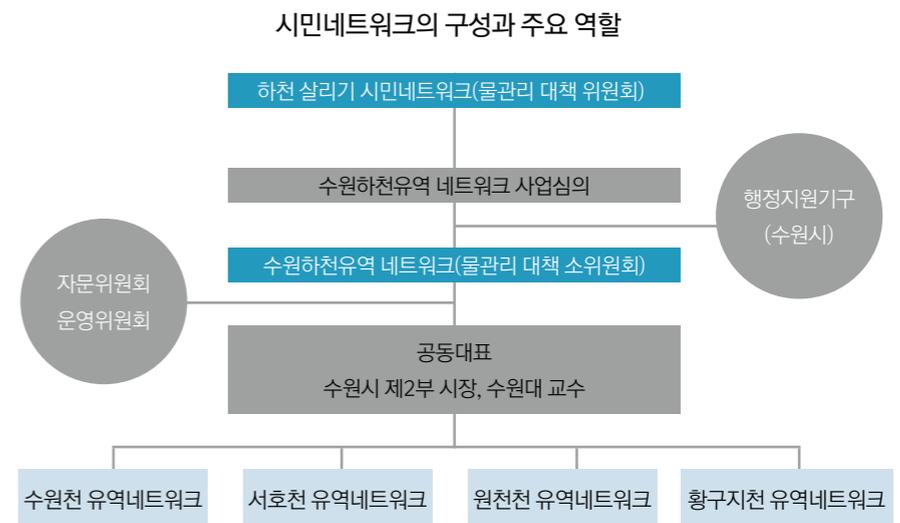
추진체계

수원천 복원 추진을 위한 3기구(복원사업 T/F팀, 전문가단, 시민네트워크) 운영

복원사업 T/F팀	구성	● 총괄: 부시장, 팀장: 환경국장, 추진부서: 하수관리과 ● 수원시: 하수관리과장, 도로교통과장, 환경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 시민단체: 하천네트워크, 지역상인회, 시민단체
	역할	● 하천네트워크 및 시민협의체 회의실시 추진(월 1회 이상) ● 시장상인 불편사항, 교통처리계획, 주변 환경 및 기타 건의사항 수렴 및 반영 추진
환경부문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 환경계획연구소, 시민단체, 환경운동센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참여
	역할	● 친수보다는 하천의 정온성 유지를 위한 생태적 하천조성을 목표로 조경, 생태, 하천수질등 환경부문에 걸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계변경 추진
수원하천유역 네트워크	구성	● 수원시 4대 하천별 유역네트워크 및 30여개 환경 시민단체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주민자치센터, 기업 등
	역할	● 수원시 4대 하천별 유역네트워크 구축 ● 수원천유역 네트워크 참여로 모니터링 실시 ●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 전개 ● 하천 호소의 거버넌스 관리체계 구축 ● 시민들의 환경활동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수원천을 시작으로 수원시 관내 하천 살리기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전문가, NGO단체, 대학, 주민, 기업 등이 참여하고 행정지원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결성으로 수원천 복원 완료 및 수원천 포함 수원시 4대하천에 대한 자연성 회복활동 지속 수행



- 수원천 유지용수 확보방안 연구
- 하천수질 모니터링 추진
- 수원천 정화활동 및 오염감시 활동
- 청소년 하천 및 문화재 지킴이 운영
- 수원천 가꾸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 생태 및 문화 안내자 양성
- 옛물길 지도 작성 및 수원천발원지 탐사
- 하천 환경정화활동 및 수환경 오염행위 감시
- 친수문화 정착을 위한 하천 유역 생명축제 등 개최

성과 및 결과사례

수원천 복원의 성과

- 생태하천 재현으로 도심 속 쉼터 제공
- 하천 복원으로 인한 수질 개선
-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조화를 이루는 수원천 복원으로 역사성 회복

정책적 가치

- 시민환경운동의 대표적 성과사례로 사람과 자연을 중시하는 거버넌스 행정의 성공
- 대도시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된 공사로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변 상인들의 반발 등 갈등요소를 극복하고 시민의 양해와 협조로 이루어낸 성과
- 하천유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후 관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기틀 마련

수원천 복원을 통해 문화역사성 회복



1930년대 화홍문과 수원천

▼ 복원



2012년 화홍문과 수원천

수원천 오염-복개-복원의 전개



수원천 오염 가중

▼ 복개



도로와 주차장으로 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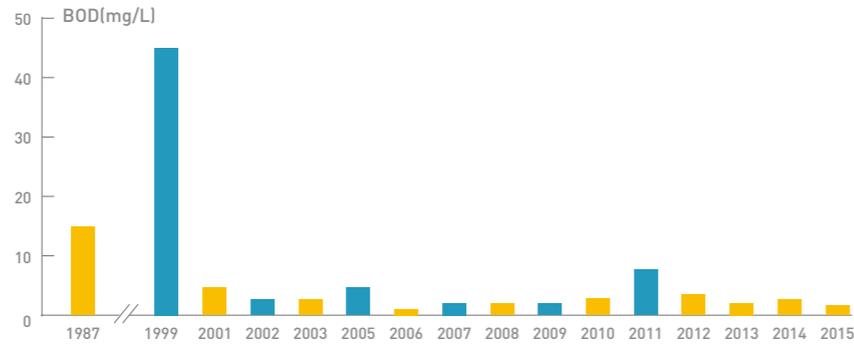
▼ 복원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수원천 복원으로 인한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개선효과

- 수원천, 복원이후 BOD가 점차 낮아져 깨끗해지고 있다.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란?

미생물이 물 속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산소량으로 물이 어느정도 오염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수치가 낮을수록 깨끗한 물로 BOD 8mg/L 이하에서는 붕어가, 1mg/L 이하에서는 산천어가 살 수 있다.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



관련 참고자료

-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수원시, 2000
- 수원천 복원효과와 발전방향, 수원발전연구센터, 2011
- 수원천 복원사업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수원시, 제8회 물포럼, 2011
- 수원시 시정백서, 2012
- 수원의 어제 오늘 내일, 수원시정연구원, 2013
- 사진: 수원시 공보관

NEED

- 수원천 복개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 문제 재인식



PROBLEMS

- 수원천 복개로 인해 하천 본연의 자연문화재적 가치 훼손
- 수원시의 정책집행주체로서 민-관 거버넌스 행정체계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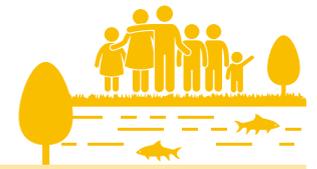
OVERCOME

- 수원시와 시민이 함께 수원천의 복원 추진 및 완결
- 수원천 복원으로 인한 생태·문화 도시 조성 및 향유



RESULT

다시 복원된 수원천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수도 구현





진보적 인간도시의 의미와 구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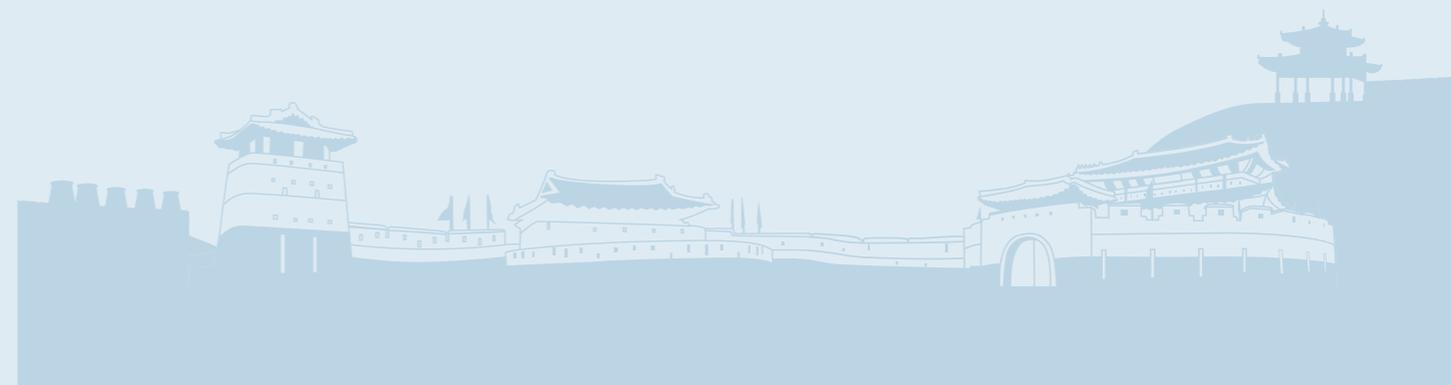
조명래 단국대학교수

78 진보적 인간도시의 의미와 필요성

79 진보적 인간도시의 모델과 구성요소

81 진보적 인간도시 만들기의 경험

83 진보적 인간도시 만들기의 실천과제



진보적 인간도시의 의미와 구현방법

조명래(단국대 교수)

1. 진보적 인간도시의 의미와 필요성

최근 아시아 도시들에서는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진보적 인간도시(progressive human city)’론이 빠르게 대두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Douglass, 2015와 Cho, 2015 참조). 이는 그간 경제 가치 중심의 외형적 도시성장에 대한 반성으로 사람중심의 도시가치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간주된다. 길게는 지난 40~50년간, 짧게는 10~20년간, 아시아 도시들은 급격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화려한 물질적 성장과 장소적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시적 삶의 온전함, 사람중심의 도시 가치, 도시의 역사적 정체성, 도시 민주주의나 지속가능성 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이 목격되고 있다. ‘진보적 인간도시 만들기’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마이클 더글러스(Mike Douglass, 2015) 교수에 따르면 ‘외형적 화려함이나 경쟁력보다는 토속성과 일상 행복이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 데 더 중요하다’고 한다. ‘장소의 번영’보다 ‘사람의 번영’이 곧 진보를 지향하는 도시의 진정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진보는 현재의 지배적인 도시 시스템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사람중심의 가치를 도시주체들이 자의식적으로 복원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커뮤니티, 공공공간, 사회경제, 토속문화, 인권과 정의, 참여 거버넌스, 도시권리 등이 곧 진보적 인간 도시론을 구성하는 키워드이다 (조명래, 2016).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계기로 진보적 성향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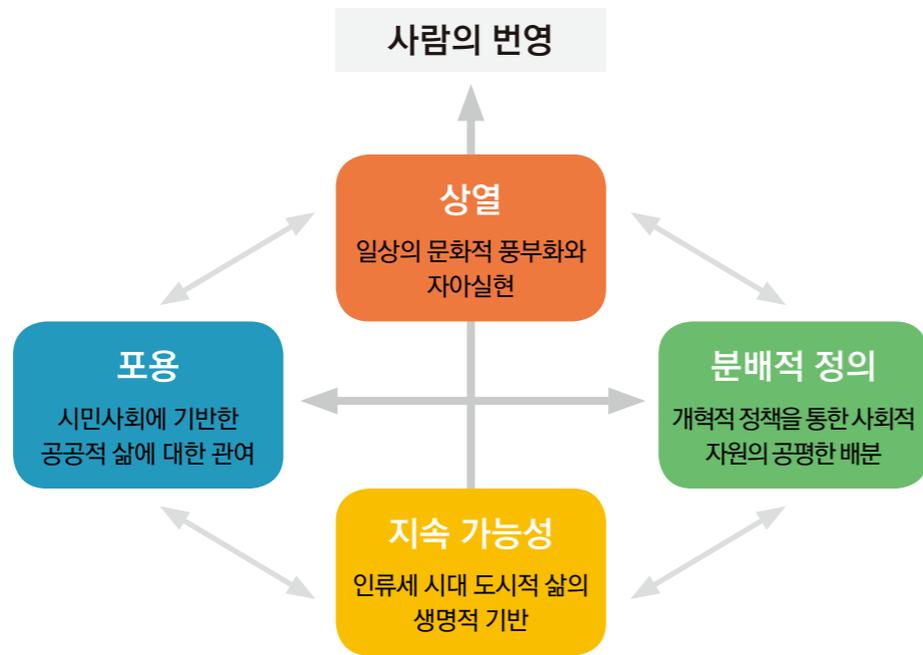
도시 만들기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2010년 이후 지방선거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구분 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뒤엔 다양한 시책으로 이를 실행으로 옮겼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의 혁신자치 붐에 비견될 수 있는, 한국의 사람중심 도시 만들기 실천을 진보적 도시란 개념으로 특성화할 수 있고, 또한 이를 이념형으로 더욱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진보적 인간도시의 ‘사람의 번영(human flourishing)’을 향해 도시주체들이 ‘진보’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는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의 번영’이 도시 발전의 ‘목표(outcome)’라면 진보는 그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혁신의 ‘과정(process)’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의 번영은 도시의 진보가 이룩되는 과정의 결과인 셈이다. ‘사람의 번영=진보’를 같은 가치개념으로 본다면 진보적 인간 도시는 ‘인간도시(human city 혹은 people-centered city)’ 혹은 ‘진보적 도시(progressive city)’라 부를 수 있다 (이하 진보적 도시란 용어로 통일). 21세기 도시가 ‘사람의 번영’의 최전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도시가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도시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한다는 반성을 반영한다. 루이스 먼포드(Lewis Mumford, 1961)에 의하면, 도시는 본디 ‘사회적 활동의 무대이고 공동체적 삶의 미학적 상징이며 도시의 물리적 구성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오늘날은 도시없는 도시화가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도시는 더 이상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터전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했다. 이런 점에서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n, 1962) 교수 ‘사람의 번영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universal claim)로서 소수의 사적(물질적) 풍요에만 기여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의 헤게모니에 대한 대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에서 사람의 번영은 정치·사회적 통제와 배제로부터 시민들이 자유롭고 생활자들이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되어 향유되며 자아실현적인 시민문화의 풍부화로 시민 자율적 삶이 가능해지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순환적 삶이 구현되는 등으로 가늠된다.

2. 진보적 인간도시의 모델과 구성요소

진보적 도시에서 진보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 나은 상태로 가는 과정(process)의 의미와 함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룩된 결과상태(outcome)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과정이란 측면에서 보면, 진보적 도시는 기존 도시시스템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된 부문(사람, 가치, 영역 등)을 옹호하고 구현하기 위한 개혁이 이뤄지는 도시라면, 결과란 측면에선 개혁과 혁신을 통해 진보적 가치 목표가 구현된 도시다. 진보의 과정과 결과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 양자를 묶는 것은 진보의 가치를 읽으면서 구현하는 ‘해석적 투쟁’이다. 즉,

진보의 초절적 개념(예, 주체화)을 도시의 맥락에서 어떻게 읽고, 이를 진보의 상황적 개념(예, 참여)으로 도출해 어떻게 현실의 실천을 통해 구현하느냐는 모두 ‘해석적 투쟁’ 하나로 연결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마이클 더글라스 교수는 ‘포용성(inclusion)’,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상열(conviviality, 즐거움을 서로 나눔)’, ‘지속가능성’, 4가지 축(pillars)으로 구성된 통합적 진보적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4가지 모두, 진보적 도시 만들기의 과정과 결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의 두 요소는 상대적으로 과정에 더 관련되어 있고, 후자의 두 요소는 결과상태에 더 관련되어 있다.



첫째, 포용성: 시민 주체화를 통한 도시(에 대한) 권리의 구현

포용성은 시민들을 공적 삶(public life) 전반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의 공적 삶에 대한 그간의 배제와 소외에서 주체적·능동적 참여와 개입으로 전환의 의미가 포용성에 함축되어 있다. 포용성의 제도화는 도시의 통치체제(지방정부)를 열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정책에서 시민주도성의 담보와 함께 시민(사람)의 필요(needs) 충족이 우선하는 것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가나 시장과 대립·보완관계에 있는 시민사회의 요소(인력, 가치, 자원, 방법 등)들이 국가 혹은 정부영역으로 투입되고,

GO-NGO간 협치의 다양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며, 시민의 주체화 혹은 권능화(empowerment)가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포용성은 궁극적으로 도시주체들이 소외된 도시적 삶을 재전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이하 도시권)’로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분배정의: 사회경제화를 통한 분배정의의 구현

공적 삶에 대한 참여(포용성)는 정책결정에 대한 주체적 개입을 통해 도시자원들을 거주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공동의 번영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해 기존의 (토건적) 성장과 개발중심의 정책의제들을 분배와 사람중심의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정의로운 분배가 되기 위해선 자원분배의 왜곡을 가져오는 도시인들의 ‘경제하는 방식’ 혹은 ‘경제적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령, 사회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상경제의 영역이 확장될수록, 도시의 각종 자원 배분도 이를 반영하게 되어 더욱 정의롭고 지속가능해진다. 시장경제를 넘어서거나 보완하는 사회경제의 확장과 활성화는 지속가능하면서 정의로운 분배를 지향하는 진보도시의 핵심적 실천 방법이다.

셋째, 상열(conviviality, 相悅): 문화적 풍부화를 통한 시민 자율적 삶의 구현

상열(相悅)은 즐거움을 서로 나누는 말이다. 상열의 도시(city of conviviality)는 도시의 구성원들이 물질적 번영을 넘어서 행복과 같은 비물질적 번영을 함께 누리는 도시다. 이는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의 상태에 이르는 자율적(주체적) 삶이 이루어는 그리스 폴리스를 이념형으로 하는 진보도시의 한 모습이다. 문화정책이 하나의 실현수단이다. 글로벌 문화 대신 토속문화, 상업문화 대신 생활문화, 제도문화 대신 일상문화, 외래문화 대신 전통문화, 개발문화 대신 보존문화, 시장경제 대신 문화경제, 문화생산 대신 문화향수가 진보도시를 지향하는 문화정책으로 육성해야 할 대상이자 영역이다. 상열은 삶의 문화적 풍부화로 나타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자아 실현적이면서 자율적 삶이 가능해진다.

넷째, 지속가능성: 생태순환의 복원을 통한 인간-자연 공생의 구현

인류세(Anthropocene)의 시대, 도시의 진보는 생태적 진보와 함께 가야하고, 도시의 정의(urban justice)는 생태적 정의(ecological justice)와 함께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환경체제로서 도시의 생태순환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태적 전환을 도시차원에서 어떻게 이끌어낼 지는 도시정치를 얼마만큼 녹색

정치로 바꾸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도시의 진정한 녹색정치는 도시권의 하나로 생태권이 인정되고 도시 주체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실천을 통해 구체권리로서 생태권이 행사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진보적 인간도시 만들기의 일환인 도시의 생태순환 복원은 궁극적으로 도시차원에서 생태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한다.

3. 진보적 인간도시 만들기의 경험

나아짐'을 의미하는 진보란 말은 계몽주의의 가치개념으로 등장했다. 진보란 말은 당초 '과학기술을 이용한 인간 삶의 개선(특히, 질병으로부터 해방 등)'을 가리켰지만 점차 '사회적 진화(social evolution)'의 개념으로 확장되다가 19세기 중후반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의 하의 불평등과 모순을 극복하는 정치적 실천 혹은 이데올로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하지만 도시의 진보는 이 보다 훨씬 오래된 계보를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정치학(Politika)에서 사람은 폴리스의 정치적 삶을 통해 인간본성(innate)을 발현하면서 최종적으로 행복(eudaimonia)의 상태, 즉 자아실현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도시의 진보는 단순한 불평등과 억압의 해방을 넘어 욕구 실현의 최종단계인 자아실현으로 가름되는 것이다.

이후 역사는 도시의 발전과 반비례하여 도시가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과 다르게 자유 대신 구속, 개방 대신 간섭, 평등 대신 불평등, 편의 대신 비용 등과 같은 역설의 삶을 강제해 왔다. 이는 물질적, 제도적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믿어지는 현대도시에서도 경험되는 바이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지만, 도시가 발전할수록 사람은 도시의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도시의 역설'이라 부른다. 도시의 역설은 도시를 다시 사람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도시를 사람들의 온전한 삶을 돕고 담아내기 위한 터전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는 사실 인류의 역사 동안 계속되어 온 바다. 실제 역사상의 많은 (신)도시들은 나름대로의 유토피아 꿈을 구현하기 위한 의도로 건조되기도 했다. 그리스의 폴리스, 로마시대의 공화도시, 토마스 무어(Thomas Moor)류의 유토피아 이상을 실현하려 공동체 도시, 자치사회주의의 기원이 된 코뮌도시, 에버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론'에서 비롯된 근대도시계획과 도시운동 등은 모두가 도시를 통한 진보를 모색하는 시도들이다.

근대에 들어 진보적 도시 만들기는 19세기 후반 영국의 자치사회주의(municipal socialism)란 자치제도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보적 도시(progressive city)'란 용어가 본격 사용된 것은 1890년대 말 1900년대 초(이른바 도금의 시대(Gilded Age)) 미국에서다. 도시의 불평등, 불공정한 배분, 약자의 배제, 부동산 중심의 개발, 성장연합 중심의 도시정책 등에 대한 진보적 자치세력들의 반발로 진보적 도시

만들기가 미국의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다. 현재, 진보적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대표 도시로는 뉴욕시를 꼽을 수 있다. 뉴욕의 현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은 뉴욕을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복지, 의료, 주택, 일자리, 환경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정치적, 제도적 경직성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을 보란 듯이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뉴욕을 진보도시라 스스로 불렀다. 현재 미국에는 300여개의 진보적 지자체 연합체인 '로컬 프로그레시브(Local Progressive)'가 결성되어 있다.

미국의 버링톤(Burlington), 오크랜드(Oakland), 보스턴(Boston), 시카고(Chicago) 등을 대상으로 하여 1970년대, 1980년대 진보적 도시 만들기 사례를 분석한 피에르 클라벨(Pieree Clavel)교수는 그의 저서 '시청에 들어간 활동가(Activists in City Hall)'에서 진보적 도시의 필요조건 5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시장(mayor)의 사회운동 기반, 둘째, 도시정부의 분배적 역할 비전 및 혁신정책의 추진, 셋째, 도시사회 계층(특히 빈곤층과 유색인)을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시정부의 개방 및 개혁, 넷째, 시장임기를 넘어서는 자치혁신의 지속, 다섯째, 시정부와 지역사회의 이니셔티브를 서로 수용하는 관계의 제도화 등이 그러하다. 미국의 진보적 도시 만들기 경험을 반추해보면, 시정의 운영이 국가나 시장의 원리가 아닌 시민사회적 원리에 우선 기반해야 한다. 즉, 관료적 자치나 시장중심의 정책운용 틀을 벗어나 근린사회의 주체들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반성장연합, 반부동산개발, 반신자유주의 세력을 형성하여, 정책의제의 중심을 성장과 개발에서 복지와 분배로 바꾸어 도시 약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며, 나아가 시민의 '도시권'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근린사회를 기반으로 한 자치혁신을 통한 '도시의 진보'는 현재의 지배적 시스템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된 사람·가치·부문·세력을 대변하고 옹호하되 혁신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의 진보는 국가나 사회전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구조적 원인'의 해결보다 시스템 작용의 (모순적) 결과로 나타나는 일상의 문제를 생활현장과 장소에서 주민주도적으로, 점진적으로,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모색된다. 이러한 도시 진보는 이데올로기 대결이나 자본주의의 급진적 대안에 매몰되기보다, 현 시스템이나 구조(예, 국가시스템 혹은 시장제도)의 모순에 대한 도시주체들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된 '상황적 이슈'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진보적 도시 만들기를 '자유주의(liberalism) 혹은 실용주의(pragmatism)'로 평가받고 있다. 말하자면, 진보의 초월적 보편적 진보가치를 현실의 상황적 가치로 어떻게 해석해 도출해 실천하느냐의 문제로 이해되는 미국식 진보주의의 모색이 진보도시 만들기의 이념이라면 이념이다.

4. 진보적 인간도시 만들기의 실천과제

진보의 최종 지향점은 '사람의 번영'이고 참여적 거버넌스, 시민 주체화, 분배정의, 호혜와 공동성의 경제, 자아 실현적 시민문화의 육성, 도시권의 보장, 지속가능성과 생태정의 구현 등은 수단들이다. 하지만 진보의 가치목표(예, 평등, 정의)를 도시맥락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구체개념(예, 참여)으로 재정의해 현실에 구현해내느냐는 '해석투쟁'의 몫이다. 진보를 가로막는 현 상태, 진보(가치)를 이끌어내는 실천의 방법, 진보의 지속을 위한 제도기반의 구축, 진보의 성과 평가 등은 모두 해석적 투쟁의 대상이자 영역들이다. 풀어보면, 이 모두는 아래와 같은 진보적 도시 만들기의 실천적 과제가 된다.

첫째, 현재 상태(시스템)에서 무엇이 도시의 진보적 가치 실현을 가로막는 지에 대한 진단과 합의가 필요하다. 성장일변도 정책, 관주도의 통치, 시민참여의 배제, 토건개발의 우선, 시장경제와 경쟁원리의 추종, 공동체 문화의 억제, 환경 불평등과 녹색정치의 결핍 등은 모두 사람의 가치가 우선되고 사람이 존중받으며 시민이 주체되어 도시를 바꾸고 공동의 삶과 문화의 확산을 가로막는 시스템적 장애물들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정의로운 도시의 진보를 만들어내야 할까?

둘째, 진보적 가치(예, 정의, 분배, 참여, 시민권, 사람 중심성)를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국가)나 시장과 협력 및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는 시민사회가 진보적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공공적 삶(public life)에 대한 시민주체들의 개입(engagement)과 주도성(initiatives)이 다양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시민의 엠파워먼트화(참여확대, 근린자치의 강화, 시민대표성의 강화)와 시정부의 민주적 개혁과 개방이 중요한 선결과제다.

셋째,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도시자원이 공정하게 배분되고 향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공공행정(시정)의 중심이 물적 개발에서 복지 서비스 창출로 바뀌고 사람(특히 약자)관련 정책에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 상품과 화폐의 지배를 강화하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대안경제(경제적 삶)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도시성장 대신 근린 활성화, 시장경제 대신 공유경제, 토건개발 대신 보편 복지, 글로벌 문화 대신 토속문화, 경제성장 대신 지속가능성의 등은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대상이고 방법들이다.

넷째, 사람의 번영을 향하는 도시진보는 단기적인 정책과 제도로서가 아니라 도시의 공간과 문화 속에 착근되어 일상 속에 사람(의 가치)이 우선하고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시민 자율적이고 자아실현적인 시민 문화를 어떻게 육성하느냐와 관련된다. 공유도시 및 공유경제, 근린자치, 시민 자율주의와 자주관리, 문화적

공공공간 및 휴먼 스케일의 건축물, 토속문화의 보전과 활용, 시민자발성을 일깨우는 문화축제 등이 대안적 시민문화를 육성하는 수단들이 된다.

다섯째, 도시의 진보는 지속가능한 생태·생명적 토대에 정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태·생명적 삶의 지속이란 것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인류세(Anthropocene) 시대 사람의 진보는 자연과의 공생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토건적(물질적) 개발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고, 나아가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소비·산업·제도가 도시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자연을 위해 사람의 이익독점을 일정하게 포기하고, 자연의 권리(생태권)를 대변하거나 도시권의 일부로 제도화하며, 이를 위한 도시정치의 녹색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진보적 도시를 향한 혁신의 지속과 함께 진보의 확산을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여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시민주의 자치분권의 제도화(시민권에 기초한 자치권의 제도화), 풀뿌리 자치의 강화, 시민자율 문화의 확충, 시민사회의 권능화, 도시권의 제도화,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예, 미국의 로컬 프로 그레시브) 등이 이를 위한 방안들이다.

참고문헌

김창성, 2008, '폴리테이아와 키버타스: 정치체제와 공간구조의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주최 《인문 한국 사업 제 1회 학술대회: 도시공간 및 도시사의 인문학적 패러다임》 발표논문.

김 현, 2011, '역사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문명의 기원', 김민정 외 편, 《문명안으로》, 서울: 한길사.

안성찬, 2011, '문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나?', 김민정 외 편, 《문명안으로》, 서울: 한길사.

박 경, 2011, '혁신 자치체는 가능한가?: 일본의 경험과 교훈', 조명래, 김수현 외 지음,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서울: 한울.

서영표, 2011, '풀뿌리 진보정치 가능성: 광역권도시의회의 사례', 조명래, 김수현 외 지음, 《저성장시대의 도시정책》, 서울: 한울.

신승원, 2016, 《앙리 르페브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조명래, 2001, 《현대사회의 도시론》, 서울: 한울.

조명래, 2002, '사회과학의 등장배경으로서 계몽주의의 재조명', 《공간과 사회》, 통권 18호.

조명래, 2013, 《공간으로 사회읽기》, 서울: 한울.

조명래, 2015, '박원순 시정의 거버넌스: 진보도시를 위한 업무수행적 거버넌스', 《대구경북연구》, 제13권 2호.

조명래, 2016, '도시의 앞날, '진보도시'의 조건은 무엇인가?', 《한겨레》, 2016.5.19.

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서울: 에이도스.

최병두, 2016, 《데이비드 하비》, 서울: 커뮤니케이션이론 총서

Cho, Myung-Rae, 2015, 'Progressive city in the making?',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gressive city, hosted by The Seoul Instituted, held in Seoul, 15th-16th October 2016.

Clavel, Pierre, 1986, The Progressive City: Planning and Participation, New Brunswick,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Clavel, Pierre, 2010, Activists in City Hall,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Corbin, David and Parks, Matt, 2014, 'New York, New York: what a progressive city looks like', The Federalist Today, April 13, 2014.

Douglass, Mike, 2015, 'The rise of progressive cities for human and planetary flourishing – a global perspective on Asia's urban tran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rogressive city, hosted by The Seoul Instituted, held in Seoul, 15th-16th October 2016.

Friedmann, John, 1962, 'The city in history,' The Town Planning Review, 33:1, 73-80.

Goldberg, Michelle, 2014, 'The rise of the progressive city', the Nation, April 2, 2014.

Hamilton, Peter, 1992, 'The Enlightenment and the birth of social science', in S. Hall and B. Gieben, eds., Formations of Modernity, Oxford: Polity.

Katzelson, Ira, 1992, Marxism and the C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ofman, Eleonore and Lebas, Elizabeth, trans. & eds., 1996, Writings on Cities: Henri Lefebvre, Oxford: Blackwell.

Merrifield, Andy, 2002, Metromaxism: a Marxist Tale of the City, New York: Routledge.

Mumford, Lewis, 1961, The City in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Ranghelli, Lisa, 2011, 'Building the progressive city', Shelterforce, February 7, 2011.

Schrager, Richard, 2009, 'The progressive city',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Public Law and Legal Theory Paper Series 2009-16.

Schrager, Richard, 2013, 'Is a progressive city possible? reviving urban liberalism for the twenty-first century', University of Virginia School of Law, Public Law and Legal Theory Paper Series 2013-22.

Strasser, Annie-Rose, 2013, 'The progressive future of New York City', ThinkProgress, November 6, 2013.

수원, 사람과 더불어 숨을쉬다

수원 정책성과 9선

편 집 위 원 | 이재은(수원시정연구원장), 송창석(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최석환(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황소하(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지연(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수진(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숙희(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은하(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조명래(단국대학교 교수)

간 사 | 김초록(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팀 주임)

발 행 일 | 2016. 11. 2.

발 행 처 | 수원시정연구원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Tel 031. 220. 8001 Fax 031. 220. 8000 <http://www.suwon.re.kr/>

발 행 인 | 이재은

편집 및 인쇄 | 디자인올(031. 237. 5571)

